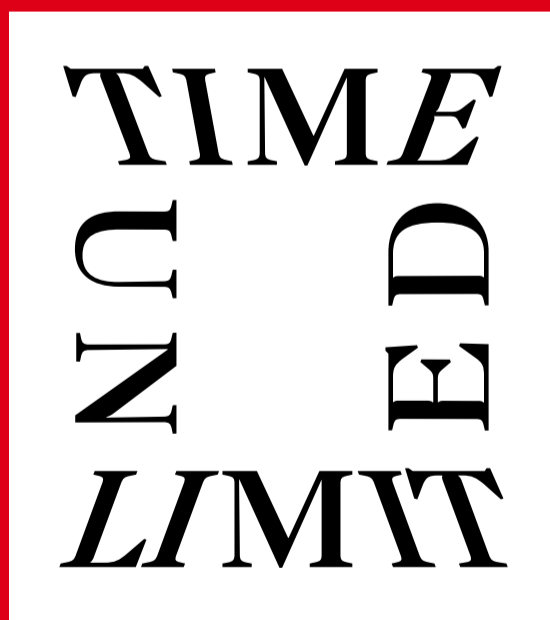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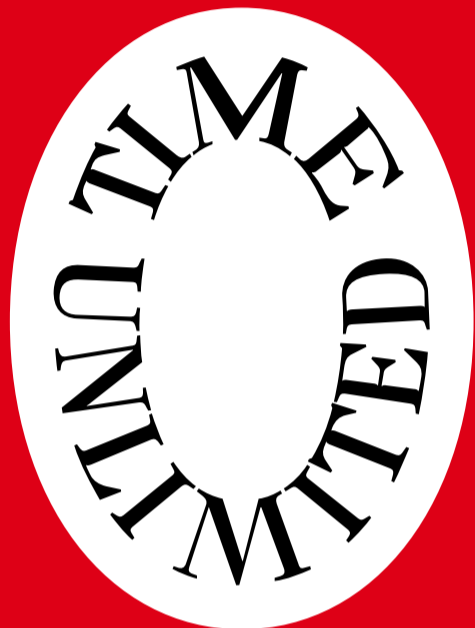


#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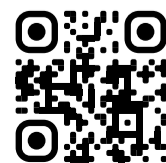
## 조선일보

JUNE 2023  
vol.254



*Cartier*

타임 언리미티드 전시  
까르띠에 워치메이킹 여정을 경험해보세요  
2023년 6월 1일 - 18일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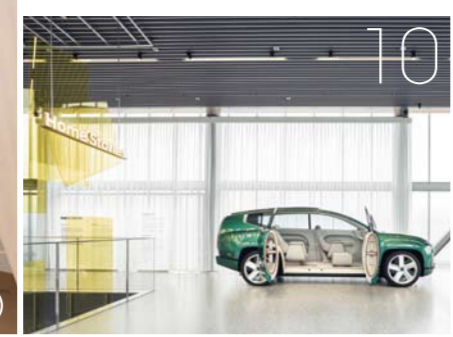
GO EUN KIM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 CHANEL

J12  
IT'S ALL ABOUT SECONDS



**Style** 조선일보

APR 2023

TIME LIMITED

TIME LIMITED

TIME LIMITED

TIME LIMITED

Carter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아우르는 가르디에 워치메이킹 여정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가르디에 워치 단독 전시 (한임 안티오페이드)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상수동에서 진행된다. 물론 특별한 미디어 작품을 통해 가르디에 워치메이킹의 철학과 가치를 더욱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반다이 피스인 가르디에 컬렉션 및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파인 워치메이킹 피스 등을 만날 수 있고, 직접 착용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는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1, 문의 1566-7277



# Style 조선일보

Issue.254 June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라온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장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 권신비 | 분해 | 재민 | 리은 | 인쇄 | 타미타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간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10 **모빌리티 셀에서 운영하는 사적인 삶**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을 고민하는 현대자동차와 삶의 솔루션을 고민하는 비트과 디자인 뮤지엄이 함께 미래에 앞선다. 모빌리티와 주거 문화의 변화를 소개하는 (홈 스토리즈(Home Stories)) 전시.
- 12 **A NEW CHALLENGE FOR PERES**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이름을 딴 갤러리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페레스프로젝트의 옴니로 공간에서 거북 줄게 들려오는 허비에르 페레스(Javier Peres) 대표를 만났다.
- 13 **TOKYO IS CALLING** 지난해만 해도 팬데믹의 빛장이 풀리는 했지만 활짝 열려 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지는 않았던 일본 도쿄의 도시 풍경, 특히 최근 유난히 세간의 이목을 끈 화제의 전시들이었다.
- 14 **LOVE BLUE**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블루 스톤 주얼리.
- 15 **FINE TIME** 한여름에 시원한 손목을 책임질 여성 스타일 브레이슬릿 워치 컬렉션.
- 16 **WATCHES & WONDERS 2023** 세계 최대 세계 박람회인 워치스 앤 원다스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48개 브랜드는 한층 진보된 테크놀로지와 자마디의 심미상을 담은 스텝을 소개하며 워치 마니아들의 환호를 받았다. (STYLE 조선일보)가 직접 취재한 생생한 현장.
- 30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빛나는 도선 정선과 창의성으로 만년필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컬렉션을 선보이는 몽블랑의 하이 아티스틱 에디션. 이 작품을 만드는 순간 예술적인 디테일, 유니크한 디자인, 특별한 장인 정신에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다. 몽블랑의 펜은 언제나 경이롭다.
- 32 **NUDO CRAFTED EMOTIONS** 밀라노 출신 아티스트인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와 포델라토의 누도 컬렉션이 만나 완성된 영상. 그 안에는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는 여성의 본질에 대한 중층이 담겨 있다.
- 34 **THE DAZZLING MOMENTS AT THE HAN RIVER**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한강 잠수교 조영이 커지며 루이 비통의 프리플(ore-fall) 소가 마을을 울렸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생생한 현장에서 펼쳐진 크고 작은 울림의 서사사에 대하여.
- 36 **DREAM SUMMER** 찬란한 태양, 시원 가득한 바닷바람, 그리고 로로 피아나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여름날 오후.
- 44 **MODERN TABLE** 크리스털로 현대적이면서 트렌디한 감성을 지닌 디자인을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새로운 타이틀웨어 컬렉션인 로젠 탈 시그널 컬렉션을 선보인다.
- 45 **COLLAGEN PAIRING**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태양에 맞서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홈 케어를 위한 솔루션, 발효의 리제-네이팅 마스크 트리트먼트가 답이다.
- 46 **SALONE DEL MOBILE 2023**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장 큰 디자인 축제, '살로네 델 모빌레'의 2023 트렌드 하이라이트.
- 50 **EDITOR'S PICK**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부터 피부와 헤어 스타일링을 지켜줄 뷰티템.



ARCEAU LE TEMPS VOYAGEUR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PARIS



크림 파우더 텍스처로 투명한 핑 파우더가 피부에 우아한 광채감을 부여하는 매트메드 보이레 푸르르 모노. 301. 8g, 12만원  
보이레.

매력적인 컬러감이 돋보이는 폴리스 차리마노 비즈 세팅 해피 다이아몬드 플래닛 아이링 가격 미정 쇼퍼드.

하루의 아이코닉한 패턴 디자인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는 쇼팅 팔레트 에를 가우드 라브드 로라 백. 27 x 23cm, 2백만원대 가격임.

일종의 총 7.47캐럿 에라사트와 체이팅이 눈길을 끌며, 밴드에 총 0.89캐럿의 801 에라사트를 장미하게 세팅한 누르 링 가격 미정 쇼퍼드.

스트랩에 세팅된 에라사의 비어있을 플레시 디자인으로 신나는 플레시 디자인을 가격 미정 쇼퍼드.

감각적인 컬러 대비로 멋을 더하는 코튼 스트라이프 플로트 톱 1백50만원 구찌.

어떤 룩에도 경쾌한 포인트가 되어줄 메릴과 글라스 필 소재의 팬시 벨트 가격 미정 샤넬.

매종의 아이코닉한 패턴에 실용한 느낌을 자아내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의 포스텐 펜던트 4백60만원 프라드.

100% 순아귀적으로 편입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비엔틀 1백만원대 가격임.

프라미의 T 모양 포인트가 특징인 메릴과 레디 소재의 신들라스 가격 미정 쇼퍼드.

# Selection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넘나드는 업타운 걸 & 보이 패션 스타일.  
photographed by kim sa yun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는 100% 스트로 스카인 패코라 패션으로 꾸민 가격 미정 보이레.

가트 스카인 소재로 에르메네르조 브랜드 감성 장화를 장하는 카르티니를 장인(14)의 워딩 신을 가격 미정 쇼퍼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클래식한 면모를 보여주는 스가죽 소재의 소프트 트렁크 바게트 백. 21.5 x 13 x 6.5cm, 2백만원대 가격임.

- 펜디 02-544-1925
- 보이레 02-310-5025
- 구찌 02-3452-1521
- 에트루 02-3446-1969
- 포플라토 02-6905-3342
- 쇼퍼드 02-6905-3390
- 샤넬 080-805-9628
- 알리아아 02-6905-3413
- 까르띠에 1877-4326
- 프라드 070-4732-0479
- 토조 02-3438-6008
- 루이 비통 02-3432-1854
- 벨가리 02-2066-0170
- 셀만느 울트 1577-8841
- 로로 피아나 02-6200-7799
- 말포 로빈 파울 라벨 02-3438-6235

단독으로 입거나 셔츠와 레이아웃해 이지 데일리 룩을 연출하기 에 재킷인 코튼 소재 포플라 셔츠 60만원대 말포 로빈 파울 라벨.



LIVE THE JOY  
**FRED**

FORCE 10 COLLECTION

신세계 강남점 1F 더 스테이지 팝업스토어 오픈  
2023년 5월 31일 - 6월 11일





# Tokyo is calling

지난해만 해도 팬데믹의 빛장이 풀리기는 했지만 활짝 열려 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지는 않았던 일본 도쿄의 도시 풍경. 이제는 예전의 생동감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파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난히 세간의 이목을 끈 화제의 전시들이 있다. 이미 현지에서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융합의 시대에 다채롭게 빛을 발하는 전시 콘텐츠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 도쿄의 창조적 장을 되짚어본다.



크고 작은 갤러리와 미술관이 모여 있는 서울 삼청동의 골목에 한눈에 봐도 아트 스페이스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이렇듯 건물도 사치에 들어온다. 베를린 본점을 필두로 알바, 그리고 서울신라호텔에도 지점을 둔 글로벌 갤러리 페레스프로젝트(Peres Projects)가 새롭게 선보인 전시 공간(지상 4층, 지하 1층을 아우른다). 인으로 발을 들여놓자 필자와 거의 비슷하게 도착한 듯 두리번거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의 여성과 눈이 마주쳤는데, 알고 보니 페레스프로젝트가 상청 지점 개관에 맞춰 연 개인전의 주인공 시시 필립스(Cece Philips) 작가였다. 이윽고 갤러리 대표이자 창립자 하비에르 페레스(Javier Peres)가 등장하면서 반은 재회의 포옹을 나누자 작가의 눈망울이 촉촉해졌다. 말끔히 단장한 공간에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려 있는 그림 들은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사로잡는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 을 먼 타국에서 대하는 작가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눈빛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96년생인 시시 필립스의 아홉 개 첫 개인전이다.

**삼청동에 새롭게 자리 잡은 전시 공간**  
그렇게 삼청동 일대가 한국의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듯하듯 하비에르 페레스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유쾌하면서도 예리한 구석이 엮여 있는 인물이었다. "맞아요, 당연히 전략적인 의도였어요. 물론 훨씬 더 유명한 작가를 선보일 수도 있었죠. 시시는 아주 젊고요." 아무래도 젊고 참신한 작가들 주로 소개하는 진보적인 이미지인 갤러리지만 개관 전에 20대 작가를 선보이더니 대담하기는 하대별로도 그룹전도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이것이 우리 제논과 나이와 상관없을까?"라며 "지난 20년여 동안 세상 최고의 인재를 발굴해 대중에게 선보이는 걸 페레스프로젝트의 정체성으로 삼아왔는데, 이번 개관을 장식할 작가를 정하려고 할 때 바로 시시가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새 전시공간에 걸린 시시 필립스의 회화 9점이 걸린 전시명은 〈Walking the In-Between〉. 해 질 녘의 도로와 바, 클럽 등의 장소에서 보이는 장면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모습은 일상적이지만 긴장감이 실려 깃든 스바깥을 자아낸다. 그들을 바라보는 여성 도시 신화자로서의 시신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풍경은 절로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실제로 인문학 전공한 작가가 이 전시를 영감 삼아 단편소설을 선물하기도 했다. 하비에르의 말처럼 타고난 스토리텔러다. 그럼 속 장면을 텍스트로 풀어내고 싶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행어라는 면에서는 에드워드 호퍼 같지만 따스한 시선과 부림스럽지 않은 경쾌한 호기심이 느껴지는 장치는 전혀 다르다. "시시는 현실을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요. 저는 '실제 세상을 살고 싶고 그런 세상을 (자마디의 방식으로) 표

현해내는 작가들을 좋아해요. 그런 작가들의 작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페레스프로젝트가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작가의 평균연령대는 모자만 30~40대 작가와 주로 일하는 한다가 웃으며 설명하던 하비에르 페레스는 "아무래도 저는 '청춘(youth)'에 매료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아니, 청춘이라고 보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인생의 시기에 있는 작가들에게 매료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라고 정정했다.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것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50대에 접어든 자신을 비롯해 중·장년이 되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양상이) 다르죠." 이번에 시시 필립스의 개인전과 더불어 진행 중인 그룹전 〈The New, New〉에 참가한 작가들의 면면을 봐도 엿보이는 하비에르 페레스의 '선호'. 라파 살베라스, 에밀리 루트비히 사퍼, 오스틴 리, 파올로 살바도르, 그리고 최근 갤러리에 합류한 1997년생 덴마크계 스페인 작가 안톤 무나르 등 젊은 피의 개성이 묻어났다. 물론 예외는 있다. 지난해 작고한 페레스프로젝트의 작가 도시시 아논(Dorothy lanonne) 같은 경우에는 80대였지만 여전히 젊고 도전적인 사고를 유지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갤러리스트의 길로 인도해준 '깨달음의 순간'**  
예술을 향한 애정이 남다르고, 취향과 철학이 확고한 이들과 얘기하는 건 역시 즐겁다. 게다가 하비에르 페레스는 쿠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난 스페인계 혈통이라는 다채로운 배경의 소유자이자일까,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주위를 전향하면서 가리킴없이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사람인만큼 유쾌한 인물이다. 온 가족의 소망대로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아트 딜러가 되어있어'라고 결심하고 변호계를 떠날 만큼 확고하게 하다.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다양한 역사를 좋아했고 예술 향유자로 자라났다는 했지만 온 가족이 자책했던 '질투'는 변호사라는 명함을 내민 건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한 건 샌프란시스코에서 독일 태생의 미국 조각가 에바 헤세의 개인전이었다고. "제가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녀도 세상을 떠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전시를 보고는 정말로 감명받았어요." 그는 미술관에서 걸어 나오면서 자신이 뭘 하게 될지 직감했다고. 그렇게 갤러리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 업계에서는 드물게 경영 마인드와 시스템에 확실히 개성이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이렇게 서울에 근한 공간을 두게 된다는 몰락기에 기회야 새롭다고 했다. "미국에서 자랄 때 한국에 친구가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문화



1 서울 삼청동(올곡로) '헤더윅 스튜디오' 새롭게 자리 잡은 페레스프로젝트(Peres Projects)의 전시 공간에서 개관전 초청 작가로 한국으로 찾은 시시 필립스(Cece Philips, 오른쪽)와 하비에르 페레스(Javier Peres) 대표. 베를린을 주 기반으로 하는 페레스프로젝트는 개성 넘치는 젊은 작가들과 협업하는 글로벌 갤러리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갤러리 탄생 20주년을 맞이해 알바와 서울신라호텔에 전시 공간을 낸 데 이어 지난 4월 말 삼청동에 자리한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밀끔히 단장해 전시 공간을 새로 선보였다. photo by SY Ko 2 런던에 거주하는 젊은 작가 시시 필립스 개인전 〈Walking the In-Between〉 설치 모습. 전시는 오는 6월 11일까지. 3 Cece Philips, 'The Green House'(2023), Painting - Oil on canvas, 154 x 122cm(57 x 48 in) (CP12087). Courtesy Peres Projects 4 시시 필립스의 개인전과 더불어 페레스프로젝트 서울 삼청동 새 공간에서 진행 중인 그룹전 〈The New, New〉. 라파 살베라스, 에밀리 루트비히 사퍼, 오스틴 리, 파올로 살바도르, 그리고 최근 갤러리에 합류한 1997년생 덴마크계 스페인 작가 안톤 무나르 등 30~40대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6월 11일까지. \* 2~4 이미지 제공, 페레스프로젝트

가 낫살지는 않았죠(실제로 삼청동 전시 공간의 건물주도 하비에르 페레스의 친구 모친이라고). 하지만 이 특별한 동네에 이렇게 멋진 공간을 꾸리게 되다니, 이걸 정말이지 영광이에요." 이미 여러 경로로 한국에서 고객층을 다져온 페레스프로젝트지만 그의 말처럼 미술 애호가들에게 '차별된' 가치를 꾸준히 선사하는 갤러리로 인파를 더 다져 나가는 응원을 받는다. 글 **고성연**

## Interview with **JAVIER PERES**(페레스프로젝트 대표) a new Challenge for Peres

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페레스프로젝트(Peres Projects)는 동시대 미술계에 뛰어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글로벌 갤러리지만 어쩐지 젊은 기운이 여보란 듯 파닥파닥 솟구치는 듯한 이미지로 기억된다. 풋내 나고 어슬픈 기운이 아니라 청춘의 영감이 내면에 쌓이다 못해 흘러나오며 반짝반짝 빛을 내뿜는 것 같은 기운이다. 그건 아마도 이 갤러리의 소속 작가 도나 후안카(Donna Huanca)가 절정의 한 순간을 여실히 보여준 〈Obsidian Ladder〉라는 수년 전의 매력적인 전시 풍경(미국 로스앤젤레스)을 운 좋게 목도한 덕분일 것이다. 도나 후안카는 지난봄 서울 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의 전시 〈블리스 풀(BLISS POOL)〉로도 찾아왔는데, 얼마 전에는 그녀의 커다란 회화가 벽에 걸려 있는 있는 삼청동 갤러리촌에 전시 공간이 새로 생겼다.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이름을 딴 갤러리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페레스프로젝트의 올곡로 공간에서 기분 좋게 들떠 있는 하비에르 페레스(Javier Peres) 대표를 만났다.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展 모리 미술관**  
도쿄의 대표적인 명소 롯폰기 힐스는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밤의 미술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리 타워의 최상단부에 자리해 눈부신 야경과 더불어 빼어난 가늠이 돋보이는 전시 콘텐츠를 자랑하는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이 연중 내내 거의 휴일도 없이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덕분에(대중요일을 제외하고 밤 10시에 닫는다). 롯폰기 힐스에 도착한 밤의 신화처럼 우선 광장 한 가운데 특유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카타만 청동 조각(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당')을 마주치게 된다. 이윽고 모리 타워에 올라가면 참예한 현대미술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문화 예술계에는 큰 틀에서 콘텐츠의 변주를 꾀하는 다채로운 전시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는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인 헤더윅 스튜디오의 주요 프로젝트 28개를 선보인 전시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를 감상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52층에 있는 '도쿄 시티뷰' 공간에서 전시가 펼쳐져 도쿄 사재를 가득 수놓은 찬란한 불빛 페어리드를 배경으로 인상적인 건축과 디자인 모험이 가득한 대규모 구성을 일관 최후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헤더윅 스튜디오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로 예술성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서울 노들섬의 디자인 기획 공모에 초청된 7개 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헤더윅은 15년 전쯤 필자가 런던에 체류하던 시절 심층 인터뷰를 한 인연도 있기에 그동안 글로벌 스타로 거듭난 그의 창조적 여정을 돌아보는 기회가 남달랐다. 하이브리드 버스,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안양연 의자가 고정되지 않고 팽퍼처럼 360도 회전하는 마시(브랜드명의 '스핀(Spun)') 체어처럼 런던과 상하이에서 직접 본 건축물과 디자인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꾸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왕립예술학교에서 3차원 디자인과 가구 디자인 등을 공부한 디자이너 출신의 헤더윅이 오늘날 이렇듯 경계를 가리지 않는 크리에이티브로 각광받게 된 데는 "디자인 전공자면서 왜 감히 건축의 영역에 들어오나. 그런 건축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이렇듯 무시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도전적으로 개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주장하듯 '흔이 담긴 느낌(soulfulness)'을 품은 건축의 미학을 지극 충도시 풍경에 선사하고 있다.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展 MOT**  
도쿄도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MOT)과 처음 대면한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다. 당시 늦가을 저녁 행사였지만 '실물'의 진가와 미술관 옆 공원이자, 그 평온하고 수려한 풍경을 재래로 볼 틈이 없었다는 걸 이번 에 깨달았다. 온라인 예매는 일찌감치 마감된 탓에 아침이면 '현장표'를 사느라 피리를 걸고 기다리는 인파로 뉴스를 장식하는 '디올 전시'를 취재하려 간 덕분에 고관도 햇살 가득한 불날의 아름다운 미술관 정취까지 만끽하게 된 셈이었다. 벌써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측되는 인기만발한 전시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는 파리, 런던, 뉴욕을 거쳐 지난해 겨울 도쿄에 상륙한 순회전이다. 크스찬 디올은 패션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갤러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한 만큼 예술에 대한 애정이나 인목이 남다른 인물이었다. 그래서 50대 초반에 유명을 달리한 젊은 생애지만 오트 쿠튀르의 세계를 팽창했던 그의 컬렉션들 이루는 장체성의 근간도 예술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다. 이번 MOT에서의 디올 전시가 그의 완성도 높은 예술적 감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준의 브랜드 아카이브 전시였다면 이토록 강한 호

1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최근 개최된 헤더윅 스튜디오 전시(2023. 3. 17~6. 4) 설치 모습. Heatherwick Studio Shanghai Expo UK Pavilion 2010 Installation view,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Tokyo, 2023 Photo\_Furukawa Yuya Photo courtesy: Mori Art Museum, Tokyo 2 Heatherwick Studio Azabudai Hills / Lower Levels 2023 (expected) Tokyo Installation view,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Tokyo, 2023 Photo\_Furukawa Yuya Photo courtesy\_Mori Art Museum, Tokyo 3 Installation view: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2023 Photo\_Furukawa Yuya Photo courtesy\_Mori Art Museum, Tokyo 4 Thomas Heatherwick @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2023 Photo\_Tayama Tatsuyuki Photo courtesy\_Mori Art Museum, Tokyo 5 2인인 메인 행렬로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쇼 플로어(Florence Müller의 시선으로 바라본 디올과 영의 독특한 유대 관계를 담았다. 6 MOT에서 열린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 \* 5, 6 photo by SY Ko 7 DIOR Designer of Dreams - Tokyo, Japan © Daici Anno 디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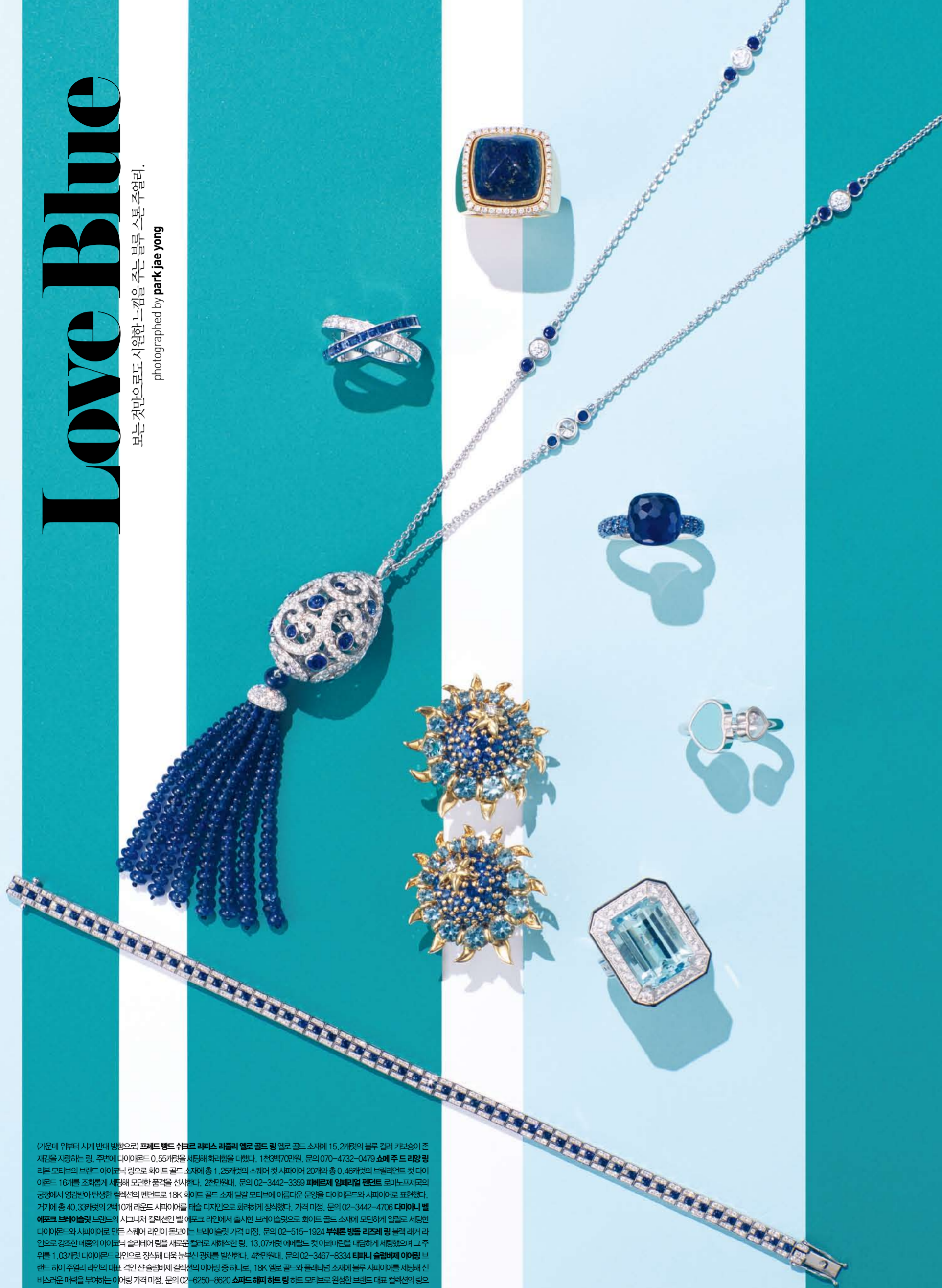
응과 인파를 누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큐레이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칫 진부할 수 있는 '순회전을 일컫는 배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바꾸려는 방식과 구성, 그리고 공간과 콘텐츠, 자원을 심분 활용한 전시 예술의 미학을 두루 섭렵했기에, 물론 여기에는 디올 브랜드와 오랜 세월을 걸쳐 인연을 맺어온 일련의 패션 역사가 깔려 있기도 하지만 전시의 미장센과 얽힌 모든 이들이 출중한 실력을 발휘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종이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한 방부터 시인 예술이나 미디어 아트, 영화 등을 배경에 녹여낸 방 등이 이어지면서 각 전시실이 자타가 찬탄해온 연출을 뽐내는데, 온몸의 감각이 실물 없이 최대치로 반응하게 된다. 디올과 함께해온 이티스트 디렉터들의 활약을 소개하는 세션의 공간적 배경에 예술성을 더해준 일본 사진작가 다카기 유리코(Yuriko Takagi)의 속씨도 눈여겨볼 만하다(그녀의 작품을 따로 모아놓은 전시실도 마련돼 있다). 패션 전시가 현대미술을 뽐내는데는 공간에서 어떻게 예술적인 전시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협업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저 해외 기관에서 대어한 작품을 뽐낼 깊은 고민과 성의 있는 투자 없이 내놓는 듯한 모습이 종종 안타까운 요즘 우리나라 미술계에 반성의 계가 될 필요는 지점이 많은 사례가 아닐까 싶다. 글 **고성연**

1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최근 개최된 헤더윅 스튜디오 전시(2023. 3. 17~6. 4) 설치 모습. Heatherwick Studio Shanghai Expo UK Pavilion 2010 Installation view,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Tokyo, 2023 Photo\_Furukawa Yuya Photo courtesy: Mori Art Museum, Tokyo 2 Heatherwick Studio Azabudai Hills / Lower Levels 2023 (expected) Tokyo Installation view,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Tokyo, 2023 Photo\_Furukawa Yuya Photo courtesy\_Mori Art Museum, Tokyo 3 Installation view: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2023 Photo\_Furukawa Yuya Photo courtesy\_Mori Art Museum, Tokyo 4 Thomas Heatherwick @ Heatherwick Studio: Building Soulfulness, Tokyo City View, 2023 Photo\_Tayama Tatsuyuki Photo courtesy\_Mori Art Museum, Tokyo 5 2인인 메인 행렬로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쇼 플로어(Florence Müller의 시선으로 바라본 디올과 영의 독특한 유대 관계를 담았다. 6 MOT에서 열린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 \* 5, 6 photo by SY Ko 7 DIOR Designer of Dreams - Tokyo, Japan © Daici Anno 디올 제공



# Love Blue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블루 스톤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 **프렌드 핸드 워터 리피스 리플리 옐로 골드 링** 옐로 골드 소재에 15.2캐럿의 블루 컬러 카보숩이 존 재감을 자랑하는 링. 주변에 다이아몬드 0.557캐럿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1천3백70만원. 문의 070-4732-0479 **소세 주드 리암 링** 리본 모티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링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257캐럿의 스퀘어 컷 사파이어 20개와 총 0.467캐럿의 브라운컷 컷 다이아몬드 16개를 조화롭게 세팅해 모던한 풍격을 선사한다. 2천만원대. 문의 02-3442-3350 **파베르제 안티미진 펜던트** 로노프자극의 공장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컬렉션의 펜던트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달걀 모티브에 아름다운 문양을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표현했다. 가가미 총 40.33캐럿의 2백 07개 라운드 사파이어를 태슬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4706 **다이아니 벨 에포크 브레이슬릿**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인 벨 에포크 라인에서 출시한 브레이슬릿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모던하게 일렬로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만든 스퀘어 라인이 돋보이는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부쉬리엔 빙돌 리즈제 링** 블랙 레커 라인으로 강조한 메종의 아이덴티티를 새로운 컬러로 재해석한 링. 13.07캐럿 에메랄드 컷 야마모토를 대담하게 세팅했으며 그 주위를 1.03캐럿 다이아몬드 라인으로 장식해 더욱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4천만원대. 문의 02-3467-8334 **타피니 솔라바게 아이링** 브랜드 하이 주얼리 라인의 대표 라인인 솔라바게 컬렉션의 아이링 중 하나. 18K 옐로 골드와 플라티넘 소재에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해 신비로운 매력을 부여하는 아이링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소피드 하트 링** 하트 모티브로 완성한 브랜드 대표 컬렉션의 링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큰 하트에는 푸른 타카시를 매치하고 작은 하트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무빙 다이아몬드 0.05캐럿을 세팅한 링 2백83만원. 문의 02-6905-3390 **포엠티도 누도 링** 아이덴티티 누도 링의 블루 버전으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총 10.2캐럿, 1개의 라틴 블루 토파즈와 1개의 라피즈로 인클루드를 부여하고 총 0.97캐럿의 38개 블루 사파이어로 그 주변을 장식해 우아함을 더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에디터 상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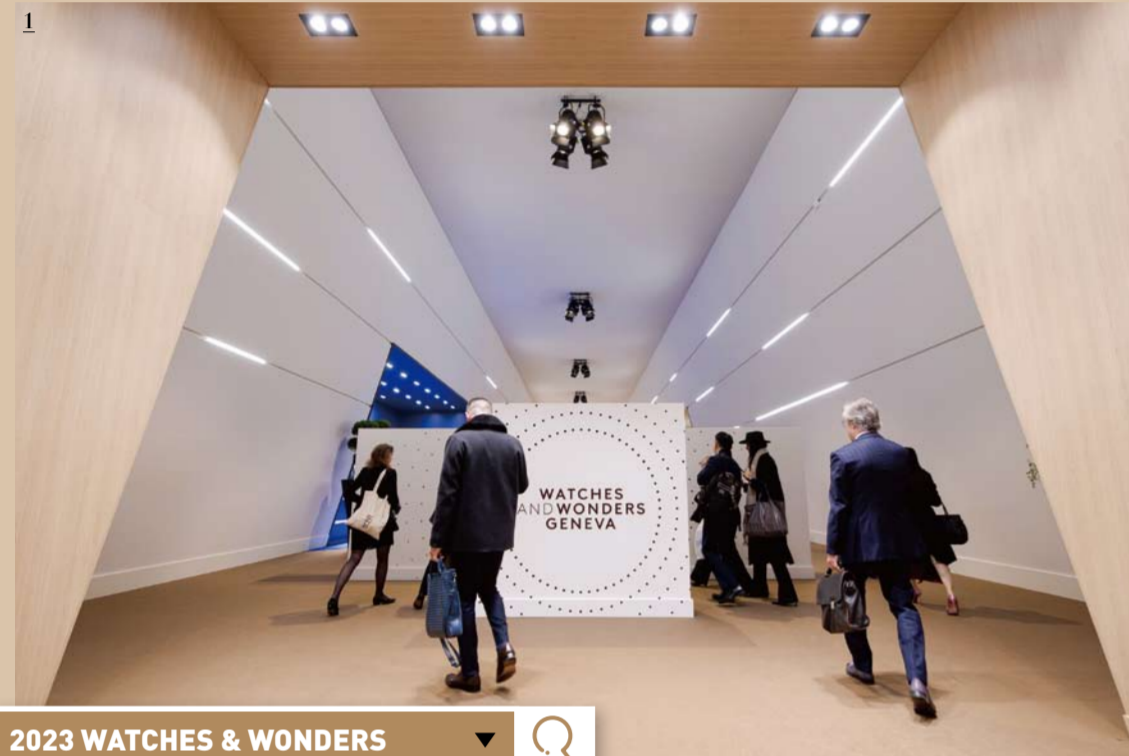
# fine time

한여름에 시원한 손목을 책임질 여성 스틸 브레이슬릿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라기 블라기 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베젤의 움직임과 로고가 포인트를 준다. 시타네 솔레(satine sole) 처리한 엔트라이트 레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배치했다. 5백85만원. 문의 02-2056-0170 **오메가 시시스터 아이유 태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은은한 핑크빛 다이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양면 차폐식 차폐에 규항에 강한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마감했으며,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오메가 8800으로 구동된다. 8백80만원. 문의 02-6905-3301 **제니스 데비 스킴라인** 브랜드의 시그니처 워치로 여성의 손목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지름 36mm 케이스 버전이다. 별들이 수놓인 듯한 하늘을 표현한 스웨이 패턴의 딥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이며, 베젤에는 브라운컷 컷 다이아몬드 52개를 세팅해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을 부여한다. 1천4백66만원. 문의 031-5170-1240 **가브리엘 탱크 프랑세즈 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소재로 러그나 굽어진 부분 없이 통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멋드러진 일평 원-피스(one-piece) 스타일. 슬러 마름에 대담 광선 모티브를 새긴 다이얼이 매력적이며, 검 도양의 블루 스틸 핸즈와 사파이어 글라스를 더했다. 워치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5백만원대. 문의 1877-4326 **바세린 콘스탄틴 오버사이즈 레이다** 워치 지름 33mm 케이스로 이담한 사이즈와 가벼운 여성의 손목에도 잘 매치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모던한 디자인을 더해 다이얼을 매치하고, 밀터 크로스를 연상시키는 육각형 베젤에 비즈 세팅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78개를 장식했다. 2천2백10만원. 문의 1877-4306 **소피드 하트 스포츠 36MM**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워치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장착했다. 모한 빛을 자아내는 실사에 로퍼자치아워 마커로 완성한 다이얼에는 25개의 무빙 다이얼드가 우아한 감성을 더한다. 1천4백48만원. 문의 02-6905-3390 **에가 르콜트르 리베르스** 원 클러시한 스퀘어 디자인이 매력적인 리베르스 워치의 스틸 모델. 40.1x20mm 사이즈의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심플한 아라비아숫자 아워 마커를 블랙으로 매치하고 블루 컬러 핸즈로 포인트를 주어 모던함에 재미를 더했다. 베젤 위아래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배가했다. 1천9백50만원. 문의 1877-4201 **에디터 상영민**

# Watches & Wonders 2023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인 워치스 앤 원더스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48개 브랜드는 한층 진보된 테크놀로지와 저마다의 심미성을 담은 신작을 소개하며 워치 마니아들의 환호를 받았다. 워치 마니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올 해의 워치 트렌드 키워드, 각 브랜드의 주요 워치까지, <STYLE>조선훈보가 직접 취재한 생생한 현장.



2023 WATCHES & WON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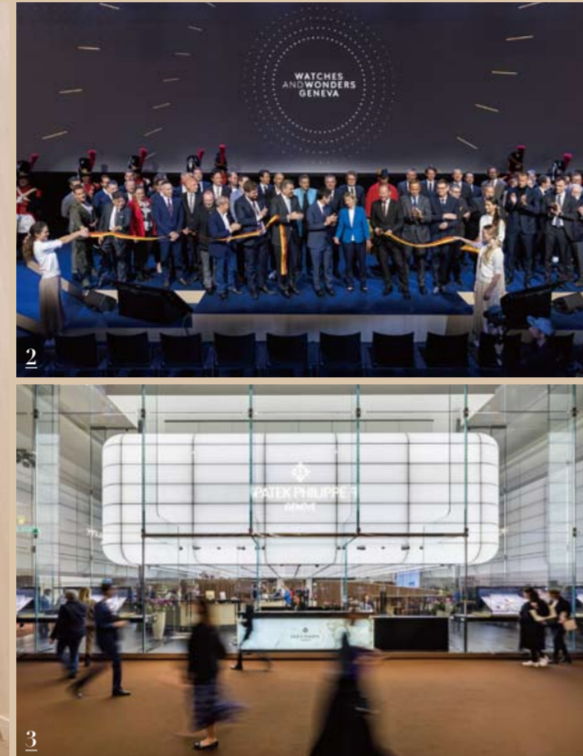
시계 애호가들의 가장 큰 연례행사로 입지를 굳힌 워치스 앤 원더스. 1991년, 국제고급시계박람회(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SIHH)에서 까르띠에, 보세, 메르세데스, 제랄드 진다, 다니엘 로스, 그리고 피아제까지 총 47개의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네바 팔레스포에서 매우 프라이빗하게 하이 럭셔리 워치를 선보인 것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프랑크푸르트, 바세른, 콘스탄틴 등 하이 워치메이킹의 명가라 불리는 브랜드가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명예와 명성을 꾸준히 높여왔다. 그리고 워치스 앤 원더스와 더불어 손꼽히는 시계 박람회로 비젤월드를 빼놓을 수 있는데, 비젤월드는 주얼리, 예술 작품뿐 아니라 시계와 시계 부품까지, 워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박람회다. 하지만 2019년 비젤월드에서 브랜드 간 지리 선정 이슈와 참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 시계 산업을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인 스위치 그룹이 불참을 선언했다. 보세, 오메가 등 메인 브랜드가 소속된 스위치 그룹이 이탈하면서 그 여파로 위블로, 제너스, 태그하이어나 소속된 LVMH 소속 브랜드와 롤렉스, 파페탈림, 에르메스, 샤넬까지 독립 브랜드가 비젤월드를 떠났다. 이렇게 비젤월드 불참을 선언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또 하나의 규칙적인 시계 박람회인 워치스 앤 원더스로 옮겨갔고, 까르띠에, 바세른, 콘스탄틴, 몽블랑, 파페탈림 등 리치몬트 그룹 브랜드를 필두로 한 시계 브랜드가 워치스 앤 원더스와 함께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 분위기는 어떨까.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레스포(Palexpo)에서 개최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다. 한 해 세계 시장의 주요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장이자 브랜드와 바이어, 그리고 프레스까지 한데 모여 시계 산업의 동향과 시계 트렌드를 꿰뚫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총 48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1백25개국에서 모인 4만3천여 명이 팔레스포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는 작년 방문자 수인 2만5천 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 역사상 처음으로 박람회를 행사 마다 할 이틀간은 퍼블릭 데이(Public Day)로 일반인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1만 2천 장의 티켓이 일찍 팔리며 놀라운 역사를 써냈다. 여서 흥미로운 사실은 입장권 25%를 25세 미만이 구매했고 전체 관람객의 평균연령이 35세라는 것. 확실히 시계 산업과 문화가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계 마니아를 위한 축제의 장  
워치스 앤 원더스 2023 개최 기간에 스위스 제네바는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으며, 박람회를 찾은 각국의 손님들을 환영해주었다. 제네바 어디서든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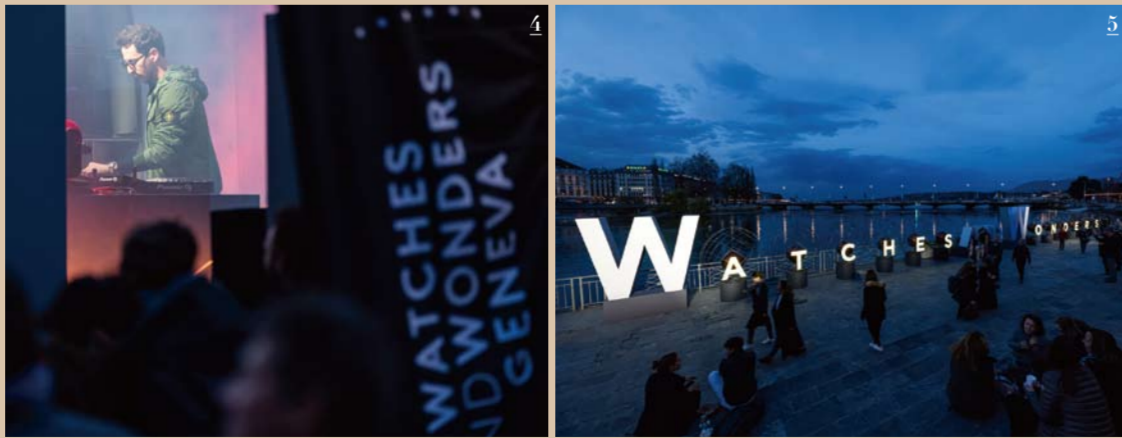
람회가 열리는 팔레스포로 쉽게 향할 수 있도록 워치스 앤 원더스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했고, 박람회 참여 부티크는 행사 기간에 예외적으로 밤 9시까지 운영해 누구든지 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도시 중심에서는 워치스 앤 원더스 행사의 일환인 '인 더 시티(In the City)'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론(Rhone)과 바스(Basses) 거리에 들어서면 'WandVR'라는 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표지를 따라 각각의 부티크로 들어가 브랜드의 역사적인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으며, 아틀리에 워크숍을 체험하고 워치메이커들과 교류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코스 중간에 배치된 QR 코드를 통해 참여 부티크와 더불어 상징적인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거리에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으며, 여러 주요 거리는 다양한 푸드 트럭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폰 드 라 마신(Pont de la Machine)에서는 제네바, 스위스 그리고 워치메이킹(Genève, la Suisse et l'Horlogerie) 콘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제네발 기성(Général Guisan) 강변에서는 유명한 DJ, 디아브너(The Avenir)의 무료 콘서트를 진행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향한 여정  
박람회 현장은 각각의 브랜드 부티크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경이로운 자태를 뽐냈다. 행사가 끝나면 부스와 버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찰나, 워치



스 앤 원더스 관계자는 몇몇 브랜드는 인테리어 자재와 장식 요소를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두었다가 매년 재사용한다고 전했다. 각각의 부스 뿐 아니라 프레스 룸,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쓰이는 자재도 15년 이상 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워치스 앤 원더스가 열린 박람회장 팔레스포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박람회장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식과 커피, 음료는 환경을 고려한 대화형 그릇으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 저감의 일환으로 제네바에서는 방문객을 위해 도심 전체의 호텔을 경유하는 다양한 노선의 공공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그리고 박람회 첫날, 쇼퍼드의 앰배서더인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등장했다. 그녀는 콘퍼런스 룸으로 향해 럭셔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와 함께한 쇼퍼드의 공동 사장 겸-프리드리히 슈펠데 역시 "쇼퍼드의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를 책임지게 소싱하는 장기적인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100% 윤리적인 금을 사용한다는 목표에 2013년부터 윤리적인 금 소싱을 시작했고, 2025년까지 자사 제품에 80% 재활용 스틸을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책임감 있는 시계 및 주얼리 생산을 언급하면서 럭셔리의 지속 가능한 여정을 강조했다. 워치스 앤 원더스 주최 측과 쇼퍼드의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향한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럭셔리의 정의를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에디터 윤지영

1 워치 브랜드 관계자, 프레스, 바이어 등 많은 인파가 팔레스포 박람회장으로 향했다. 2 팔레스포 안에 마련된 콘퍼런스장에서 워치스 앤 원더스 2023의 개회를 알렸다. 3 일반 부스와 신상품 인트로 이벤트를 선보인 파페탈림의 부스 전경. 4, 5 5개 브랜드가 참여한 DJ 디아브너(The Avenir)의 무료 콘서트 덕분에 높은 방문객이 몰려들어 있었다.



## WATCH TREND KEYWORDS 3



1 MY UNIVERSE WATCH  
시계와 우주의 연결 고리는 이번 시즌에도 계속될 예정. 시계에서는 SF와 시공간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사철 인스텔라 캄플렉션을 통해 우리를 우주로 초대했다. 우주를 떠올리게 하는 빈색은 블랙 레커 다이얼과 약 0.13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소재 별 모양 럭키 챔피 특징인 프리미에르 럭키 스타 한정판 워치를 선보인 것. 시계 명가 바세른 콘스탄틴에서는 총 11가지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카비노트에 듀얼 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앞면에는 달의 존재에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남반구의 북반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습을 구현했고, 뒷면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항성자리 별자리를 묘사한 매력적인 디자인을 더했다.



2 KEY COLOR, SALMON  
이번 시즌에는 블루와 그린 같은 컬러 다이얼 스펙트럼에 새틴 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컬러 다이얼이 선사하는 화려함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전하는 새틴 다이얼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 쇼퍼드에서는 우한 컬러 다이얼과 시크한 조화를 이루는 직경 41mm 케이스의 일파인 이글 41 XPS를 선보였고, 튜더에서는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로열 워치에 새틴 컬러 다이얼을 추가했다. 섀넬이 피아제를 기린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정교함이 돋보인다.

3 STUNNING HARMONY  
주얼리와 주얼리의 화합은 언제나 옳다. 이번 해 특징을 꼽자면 여성 주얼리 워치는 더욱 깊고 작아졌다는 것. 까르띠에에서는 워치의 곡선을 강조한 더블 라인인 특징인, 총 2,04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 사파이어, 에메랄드 및 투르말린을 세팅한 베누아 워치를 선보였다. 반클리프 아펠은 하이 주얼리 워치로 루도 시크릿 워치를 공개했다. 메종 루브르 감성적 기질의 전문성을 발휘해 동양인 정도의 광채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산발해 세팅하고 기묘한 화이트 마더오프 다이얼과 조화를 이룬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지니었다.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 INSIGHTFUL WORLD

시계를 감상하는 것만큼이나 흥미롭고 인사이트 가득한 각 브랜드들의 부스 인테리어.

MONTBLANC 이번 2023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준 부스 중 하나. 팔기 문에서 시작된 메종의 근교와 몽블랑이라는 신의 연결점에서 영감을 받은 부스 콘셉트가 눈길을 끈다. 얼음 같은 벽, 화강암, 그리고 화이트 그레이 우드 컬러가 어우러진 공간 덕분에 산속 풍경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부스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몽블랑 님이 달린 팔기 진자. 프랑스의 노매딕 비주얼 아티스트 마리 드 빌 보제(Marie de La Ville Baugé)가 고안한 진자는 시계 다이얼을 연상 시키는 둥근 캔버스 위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작동하면서 산악 방황에 항쟁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몽블랑 워치메이킹 세계의 주요 테마인 시간, 팔기 예술, 산악 탐험 정신 간의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HERMÈS 마치 동화적인 분위기의 미술관에 들어선 것 같기도 하고, 기계시계 내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준 에르메스의 부스. 부스에 설치된 작품들이 저마다의 규칙이 있는 듯 정렬하면서도 몽환적인 메카니즘을 보여주면서 방문자들을 에르메스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아티스트 클레망 벨(Clement Vieille)이 설치한 부스 안 작품들은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열정으로 물질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압력과 팽창이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결합되는 텐세그리티 구조, 직조된 탐소섬유 시트, 메스 다이아몬드 소재는 그의 작품 주제인 기능성에 대한 탐구를 잘 표현했다.

IWC 이번 시즌 신제품의 스토리텔링을 엿볼 수 있었던 IWC 부스. IWC는 1970년에 제랄드 진타가 디자인한 인제너어 요를 모티브로 한 인제너어 오토메틱 40'을 출시했는데, 이번 디자인적인 호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 부스에는 메르세데스-벤츠 C 111-111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을 반영한 엔지니어링의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듯, 차체는 공기역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기능과 기술적 디테일에 집중한 콘셉트 카로 1970년대 디자인 트렌드를 보여준다. 또 방문객들은 찰스 & 레이 인스(Charles and Ray Eames)의 로비 알미에 ES104 등 스위스 기구 회사 비트라(Vitra)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구들을 비롯한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찰스 & 레이 인스를 대표하는 가구들은 기능적 디자인과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결합된 결과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인제너어 모델에도 적용되며, 제품 처리 및 마감에서 놀라운 만큼 정교한 디테일과 품질을 보인다고.

# 무한한 시간과 창의성

2023년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시계를 통해 워치메이킹 선구자로서 위업을 다시 한번 보여준 까르띠에. 메종의 기술력을 응집한 스키타레온 워치, 올해 역시 워치 마니아의 기대에 크게 부응한 프리베 컬렉션, 그리고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클래식 [인리미티드 워치 등 까르띠에가 바라보는 시간의 순환성을 설명하기]에 충실했다.

전통적으로 까르띠에는 시간을 선형적이기보다는 순환하는 것으로 표현해왔다. 하여 메종은 시간의 순환성이라는 비전하에 변신과 재해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계속되는 움직임이 우리를 미래로 이끈다고 믿는다. 또 위치는 현재뿐 아니라 영속적으로 진화하는 미래에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라 여긴다. 워치스 앤 원더스 2023에서 새롭게 선보인 워치 컬렉션에는 이런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루이 까르띠에가 성공을 예측했던 탱크 모델인 탱크 노말과 탱크 아메리칸, 그리고 파샤 드 까르띠에, 베누아, 팬더, 산토스 드 까르띠에를 새롭게 해석해 메종의 상징적인 워치로서의 면모를 돋보이도록 했다. 또 주얼리 클래식 컬렉션의 미학적 유산을 재해석한 클래식 [인리미티드 워치]까지 진정한 창의적 융합을 보여준다.

**산토스 뒤몽 스키타레온 마이크로 로터** 작 관 공간과 빈 공간. 이 상반되는 개념이 까르띠에 스키타레온 워치의 베이스로, 간결하게 깎아낸 다이얼, 조각적인 프레임 안에 떠 있는 듯 보이는 무브먼트가 이루어내는 완벽한 균형미는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까르띠에 매뉴팩처가 새롭게 특별히 개발한 9629 MC 오토매틱 스키타레온을 탑재해 아이코닉한 산토스 뒤몽 위치를 더욱 얇고 정제된 형태로 발전시켜 새로운 위치 역사를 써나간다.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뒤몽에게 경의를 표하는 구조적 디테일이 눈길을 끌고,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로터를 축소해 넣었다. 또 1907년 산토스-뒤몽이 디자인한 비행기 드모아젤(Demoiselle)을 본뜬 형태가 눈



길을 끌며, 마치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핑크 골드와 스텔 소재로 제작한 피스드 고유 번호가 부여된 1백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옐로 골드와 네이비 래커 버전을 선보인다. 특히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모든 디테일, 베젤, 케이스를 래커 처리한 것이 특징으로 스키타레온 브리지는 수작업으로 더욱 정교하게 래커를 입혀 완성도를 높였다.

**파샤 드 까르띠에 스키타레온** 까르띠에는 특별히 파샤 스키타레온을 위해 시그니처 무브먼트를 워치의 오버사이즈 아라비아숫자에 맞춰 변형했다. 한눈에 등근 워치 베젤 사이로 대조적으로 보이는 사각 프레임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또 필리그리(filigree) 레일 트랙의 사각형, 케이스 형태를 위한 원형이 조화를 이룬다.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

운 느낌을 선사하는 핑크 골드 소재가 돋보이며, 그 안에서 그레이 컬러로 래커 처리한 9624 MC 스키타레온 무브먼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로통드 드 까르띠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스키타레온 포켓 워치** 메종에서 선보이는 가장 복잡한 무브먼트 중 하나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포켓 워치. 그 자체로 경이로운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바로 9506 MC 오토매틱 칼리버로 파인 워치메이킹의 핵심인 미닛 리퍼터, 플라잉 투르비옹, 페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담고 있다. 두께 6.77mm, 직경 35mm의 이 칼리버는 클래식한 미학을 구현하며 섬세함과 우아함이 단연 돋보인다. 칼리버 주변으로 특별하게 재단한 프레임은 록 크리스털, 블랙 옉시디언, 화이트 골드가 조화를 이룬다. 또 금세공인과 에나멜러가 협업해 순차적으로 워치 케이스에 화이트 골드 고드룬 프리즈 장식하고, 그주위에 블랙 에나멜 로 라인을 그려 넣었다. 제작, 조립, 조정, 케이스까지, 매 단계에 매뉴팩처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했다 할 수 있다. 약 5백 78개 부품을 사용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칼리버는 조립부터 케이스까지 모든 과정에 약 7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 1 블루 래커 장식을 다한 옐로 골드 케이스의 산토스 뒤몽 스키타레온 마이크로 로터 워치.
- 2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전하는 산토스 뒤몽 스키타레온 마이크로 로터 워치.
- 3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스키타레온 브리지를 시간을 표시하는 파샤 드 까르띠에 워치.
- 4 미닛 리퍼터, 플라잉 투르비옹, 페페추얼 캘린더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9506 MC 오토매틱 칼리버로 구동하는 로통드 드 까르띠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스키타레온 포켓 워치.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 탱크 노말** 시계 애호가와 컬렉터를 위한 시계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 더욱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까르띠에 프리베. 메종에서는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을 통해 매해 전설적인 모델을 기념하고 재해석해 선보이는데, 올해는 일곱 번째로, 전설적인 모델 탱크 노말이 그 주인공이다. 탱크 노말은 1917년 루이 까르띠에가 제작하고 2년 후 판매하기 시작했고, 까르띠에 워치메이킹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피스드 중 하나이며, 정밀한 디자인과 꾸밈없는 라인이 특징이다. 올해의 프리베 피스는 오리지널 모델의 비율을 적용하고 베젤링 처리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더한 시·분 버전을 완성했다. 브라운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옐로 골드,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플래티넘 버전으로 선보인다. 1970년대에 경의를 표하며 대비

를 이루는 새틴 피니싱과 폴리싱 피니싱을 적용한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브레이슬릿 모델을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또 새틴 피니싱 처리한 케이스와 스트랩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일관성이 샤프트 윙클과 케이스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폴리싱 피니싱과 어우러진다.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 탱크 노말 스키타레온** 메종의 아이코닉 워치 중 하나인 스키타레온 무브먼트를 더한 프리베 컬렉션 탱크 노말 스키타레온을 만나보자. 태양과 초승달로 표시하

5 탱크 노말 워치에 카보송 컷 루비 1개를 세팅한 플래티넘 크라운이 돋보인다. 6 심플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전하는 플래티넘 케이스에 검 모양의 블루 폴리싱 스텔 헨즈가 특징인 탱크 노말 워치 스키타레온. 7 브라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옐로 골드 케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탱크 노말 워치 스키타레온. 8 카보송 컷 루비 17개를 세팅한 플래티넘 케이스의 탱크 노말 워치. 9 고유번호가 부여된 1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까르띠에 프리베 탱크 노말 워치는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인 070 칼리버로 구동한다.



는 24시간 컴플리케이션이 특징이며,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 회전하지만, 시침은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에 한 바퀴 회전한다. 그 결과 낮은 윗부분, 밤은 아랫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까르띠에의 워치메이커들이 낮에서 밤으로의 전환을 형상화하기 위해 컬러 그라데이션으로 스키타레온 브리지를 코팅해 다이얼을 나눈 것도 관련 포인트. 고유 번호가 있는 50개 리미티드 에디션인 이 스키타레온 탱크는 브라운과 그린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장착하고 와인딩 크라운에 카보송 컷 블루 사파이어를 매치한 옐로 골드 버전, 그리고 버건디와 그레이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장착하고 와인딩 크라운에 카보송 컷 루비를 매치한 플래티넘 버전으로 선보인다. 특히 화려한 맛을 선사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와 함께 구성된 20개 리미티드 에디션에도 고유 번호를 부여해 완벽한 프리베 컬렉션의 앙상블을 완성했다. 두 가지 블루 컬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와인딩 크라운을 갖추었다.



도 커다란 다이얼과 제약이 따르는 곡선 형태의 워치 디자인에 창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워치를 사선으로 나눠 한쪽은 옐로 골드, 반대편은 화이트 골드로 구성된 케이스를 완성하며 미션에 가까이가 다가갔다. 여기에 이 둘을 결합하기 위해 워치메이커들은 마이크로 용접 도구를 사용했고, 두 골드의 틈은 래커로 감추었다. 또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색상은 폴리싱 처리 또는 스파이크(spike)를 이용해 수작업한 태양 광선 모티브로 장식하고, 일부 색션에는 운모(mica) 조각이 반짝이는 투명한 래커로 코팅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 피스의 곡선을 따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와 완벽한 대비를 이루며 시크한 맛을 그대로 절한다. 소재, 컬러, 기하학을 새롭게 탐험하며 장인 정신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추상적 모티브를 담은 이 워치는 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클래시 [언리미티드]** 섬세함과 강렬함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주얼리 워치, 클래시 [언리미티드]. 착용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우아함이 돋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비즈, 피코 스타드, 플루 까레의 유동성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클래시 드 까르띠에 코드가 서로 연관되면서도 각각의 길을 만들어나가며 프레시 워치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패시 처리한 가장자리와 베벨링 처리한 다이얼 및 팅 칸 동시에 빈 공간, 둥글고 각진 요소 등 기하학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메종의 스타일을 충실히 반영한다. 워치스 앤 윈더스 기간 중 각 부스에서 진행한 '터치 앤 필(Touch and Feel)' 색션에서 직접 착용해봤을 때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완벽한 착용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일렬로 펼쳐지는 비즈부터 브레이슬릿 경첩까지 섬세하게 고안하고 제작되었기 때문. 또 독특한 실루엣을 강조하는 링크 형태부터 16개 패시가 돋보이는 유리로 만든 미니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워치의 구조미로 깊이감을 구현하고자 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브러싱 처리한 골드와 새틴 피니싱 처리한 골드를 번갈아 배열했고, 까르띠에를 위해 독자 개발한 매력적인 보랏빛이 감도는 바이올렛 옐로 골드 혹은 핑크 골드로 결합했다. 여기에 동일한 주제를 변주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피스도 눈여겨보자. 우선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디자인, 그리고 오크스, 블랙 스피넬, 옹시디언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랙 & 화이트 디자인, 그리고 산호, 블랙 스피넬, 크리스토프레이즈, 차보라이트와 다이



1 클래시 [언리미티드] 워치의 핑크 골드와 바이올렛 옐로 골드가 어우러짐을 즐긴다. 2 총 0.737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8개, 스파넬, 옹시디언을 세팅한 케이스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클래시 [언리미티드] 워치. 3 총 0.977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8개를 세팅한 케이스와 총 2.897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992개를 세팅한 브라운 컬러의 클래시 [언리미티드] 워치가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4 블루 투르퀸, 그레이와 블랙 스피넬, 총 1.397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987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베뉴아 알통제 워치가 여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5 총 2.81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12개를 세팅한 케이스를 다한 에데에 디르 베뉴아 알통제 워치.

Simone Cavadin © Cartier

Simone Cavadin © Cartier



까르띠에 인터내셔널 대표 & CEO 시릴 비네론과 케어링의 지속 가능성 최고 책임자 & 기후 책임자 마리-클레르 데뷔

**워치 & 주얼리 이니셔티브 2030**

이번 워치스 앤 윈더스 2023은 '럭셔리'의 지속 가능성을 부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박람회 기간 중 열린 패널 토론을 통해 까르띠에 인터내셔널 대표이자 CEO 시릴 비네론과 케어링 그룹의 지속 가능성 최고 책임자이자 기후 책임자인 마리-클레르 데뷔는 '워치 & 주얼리 이

니셔티브 2030'을 주축하는 협회의 공식 설립을 발표했다. '워치 & 주얼리 이니셔티브 2030'은 전 세계의 워치 및 주얼리 브랜드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저탄소 미래를 향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와 인류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비전을 지향하는 협회다. 기후 회복력 구축, 자원 보존, 포용력 증진에 초

점을 맞추고 협회 멤버들은 기후, 생물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가시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니셔티브는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멤버들이 환경, 사회, 윤리 관련 모범 관행에 대한 소비자, 시민사회, 규제 기관의 점차 커지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같은 현재 지구가 겪는 위기에 모두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혁신적인 파트너십 추구하고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전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까르띠에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열망을 이니셔티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리치몬트의 위임을 받았다. 글로벌 그룹 케어링 및 주얼리산업관행책임위원회(RJC)와 협력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강령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1년 10월 론칭한 이래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했는데, 이번부터 샤넬 오를로제리 조알러리, 몽블랑, 로지 블루(Rosy Blue), 스와로브스키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새로운 멤버들은 기존 까르띠에를 비롯해 케어링의 구찌 워치, 부쉐론, 포멜라토, 도도(Dodo), 킨(Qeelin)에 이어 추가로 합류하게 된다. "우리 모두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업계의 지속 가능성은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까르띠에 인터내셔널 대표 & CEO 시릴 비네론의 말처럼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멤버들의 참여는 지구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곧 더 많은 브랜드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에디터 윤지영**

**EXHIBITION**



타임 언리미티드 전시 포스터 비주얼을 장식한 크래시 워치, 파스된 까르띠에 베뉴아 알통제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중동이라는 뜻의 크래시 워치 컬렉션이 탄생했다.

**타임 언리미티드 전시**

워치스 앤 윈더스 2023의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서울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행사, 국내 최초 까르띠에의 워치 단독 전시가 진행한다는 반가운 소식. 까르띠에 워치메이킹 여정을 만나볼 수 있는 (타임 언리미티드) 전시가 6월 1일부터 18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다. 대체로 워치 제품 전시 및 몰입도 높은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을 통해 까르띠에 워치메이킹의 철학과 가치관을 소개한다. 탱크, 욱조, 종, 거북이, 조약돌, 쿠션 등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형태의 다양한 시계를 전시에 형태를 만들어내는 워치메이커 까르띠에를 대변하고, 까르띠에의 워치메이킹 헤리티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공간 속 각각의 테이블은 지금의 까르띠에 워치메이킹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선구자적 정신과 디자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메종의 철학에 대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빈티지 파스인 까르띠에 컬렉션 및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파인 워치메이킹 피스 등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직접 제품을 착용해볼 기회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장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1 문의 1877-4326

**TIME  
UN  
LIMITED**



WATCHES & WONDERS\_BVLGARI

## 팔각형의 매력, 옥토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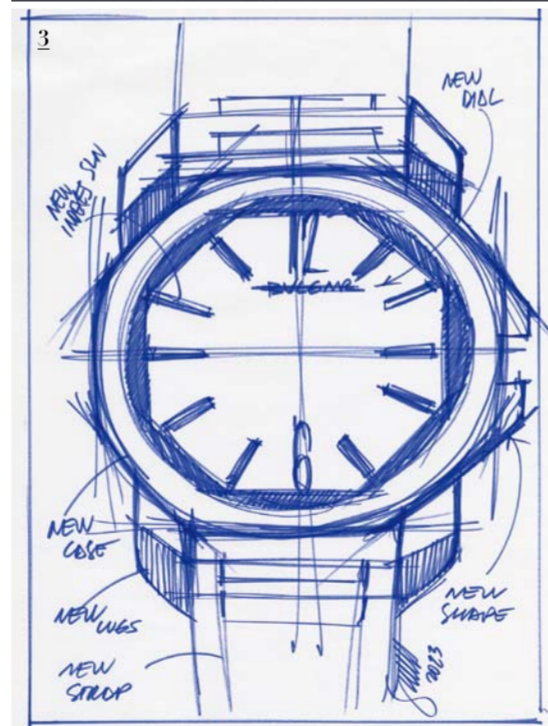
클래식하면서도 그렇지 않은(classic-yet-not-quite) 디자인 미학이 시선을 사로잡는 옥토 로마의 모든 것은 불가리 워치에 담긴 이탈리아 감성이자 섬세한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다. 올해 불가리는 옥토 로마 오토매틱과 옥토 로마 크로노그래프를 통해 새로운 색다른 클래식을 제안한다.

워치스 앤 윈더스와 같은 기간 불가리는 제네바 도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힐스 호텔에서 신제품 소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LVMH 워치 위크(LVMH Watch Week)에서 여성용 하이 주얼리 워치를 선보인 불가리는 3월 제네바에선 남성 위치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주얼리이자, 이탈리아의 빛 안 되는 워치메이커이기도 한 불가리의 올해 미션은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 1940년대 세르펜티 투보가스 브레이슬릿 워치를 시작으로, 1970년대 시계 분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시작한 불가리는 '시계는 팔에 차는 보석'이라는 모토로 1977년에는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을 선보였고 옥토, 디바스 드림, 루체아 컬렉션 등을 내놓으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갖춘 명실공히 혁신적인 워치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 불가리 메종의 새로운 도전

옥토 컬렉션은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에 혁신적이고 강렬한 이탈리아 디자인을 결합해 완성한 시계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커져야 하는 기하학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미학적 완성도가 뛰어난 시계로 또 한번 매종 고유의 디자인 감성을 확인시킨 마스터피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계를 언급할 때는 디자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제랄드 젤타(Gérald Genta, 1930~2011)를 빼놓을 수 없다. 시계 디자인 역사는 물론이고, 업계의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독립 시계 제작사를 창립할 정도로 워치메이킹에 진심이자 제조업자, 사업가인 디자이너였다. 불가리는 2001년 워치메이킹을 강화하기 위해 제랄드 젤타 브랜드를 인수했고, 관련된 모든 디자인과 특허 및 상표권을 사들였다. 옥토 컬렉션은 제랄드 젤타가 불가리에 흡수되기 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계를 만들던 그 시절에 탄생한 시계로 합병 후 자연스럽게 불가리로 편입되었다. 불가리 워치 디자인 센터 수장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브리치오 부오나마사 스티글리아니(Fabrizio Buonamassa Stigliani)의 터치를 더해 2012년에는 불가리 이름을 달고 론칭, 2014년에는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탑재한 옥토 피니시모 버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계라는 신기록을 세우는 등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녔다. 하이엔드 워치로 향하기 위한 예술적, 기술적 실험을 거치며 명실공히 불가리의 아이콘 위치로 등극한 옥토 컬렉션. 고대 로마 건축물의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형 케이스는 메종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는 로마와 브랜드의 역사적 연결 고리에 대한 경의이기도 하다. 특히 원형과 팔각형이 균형감 있게 공존하는 베젤에서는 파인 워치메이킹 기술을 통합한 옥토로 마만의 차별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크라운과 크라운 프로텍터를 자연스럽게 통합한 것이다. 마치 크라운이 녹아들듯 케이스 디



자인에 통합되어 심플하고 간결하다. 이 디자인은 크라운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면도 만족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옹 워치를 비롯해 가장 얇은 오토매틱 GMT 크로노그래프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얇은 퍼페추얼 캘린더, 그리고 최근 선보인 두께 1.8mm에 불과한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를 통해 일련의 성취를 이루어온 옥토 컬렉션. 매종 고유의 미학을 새롭게 정비하는 동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범상치 않은 이 시계가 2023 워치스 앤 윈더스에서 또 한번 주목을 끌었다.

### 2023 노벨티, 옥토 컬렉션의 주요 모델

2023 워치스 앤 윈더스에서 선보인 옥토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들은 매력적인 오토매틱 워치부터 인상적인 크로노그래프, 놀라운 투르비옹 피스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하고 섬세하며 우아하다. 옥토 피니시모를 비롯해 2014년부터 매해 신기록을 갱신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작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버전의 옥토 컬렉션을 즐기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옥토 로마 모델은 교체 가능한 인터체인저를 스트랩을 매치해 착용자에게 더 큰 자유와 선택지를 제공한다. 불가리 워치메이커들은 인터체인저를 시스템이 케이스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는데, 매우 견고한 이 시스템은 한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도구 없이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 시계를 구입할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리버 스트랩을 함께 제공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물론 다양한 컬러의 리버와 악어 가죽 스트랩도 별도로 구매 가능하다. 이 같은 다양한 소재와 컬러는 착용자 고유의 스타일과 개성을 반영한 다재다능하고 맞춤 가능한 타임피스로서 새로운 옥토 로마가 지향하는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옥토의 노벨티 중 매종의 방향성과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멋을 통해 스위스 워치메이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두 모델을 소개한다.

### 옥토 로마 오토매틱(Octo Roma Automatic)

케이스 지름 41mm의 옥토 로마 오토매틱 모델은 다이얼 위에 시·분·초침을 이루는 스리 핸즈와 날짜창만 올려 심플함을 추구했다. 덕분에 가독성이 뛰어나며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다. 클루드 파리 모터브가 피니싱에 섬세한 터치를 더한다. 작은 피라미드 패턴은 역사적인 스위스 오토 로로제리 모터브를 이탈리아 스타일 디자인과 조화롭게 결합함과 동시에 빛과 어우러지며 피스에 입체감과 풍성함을 가미한다. 블루, 화이트, 엔트리아이트 등 세 가지 다이얼 컬러 베리에이션을 선보이며, 개인적인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블루 다이얼은 클래식하고 타임리스한 느낌을 주고, 화이트 다이얼은 의외의 존재감과 대담함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다크 그레이 컬러의 엔트리아이트 다이얼은 섬세함과 정제미를 추구하는 이들에

게 제격이다.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다이얼에서는 바늘뿐 아니라 아워 마커와 6·12시 방향의 옥토 로마 아라비아숫자 모두 슈퍼-루미노바® 코팅 처리했다. 42시간 파워 리저브 가능한 인하우스 칼리버 BVL 191이 동력을 제공한다.

### 옥토 로마 크로노그래프(Octo Roma Chronograph)

컬렉션에 데뷔할 때부터 주목을 끈 옥토 로마 크로노그래프는 블루 혹은 블랙의 명확하고 가독성 높은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세련된 다이얼을 갖추었다. 중앙의 초침과 30분 카운터, 12시간 카운터와 함께 크로노그래프 기능으로 경과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날짜창은 4시와 5시 방향 사이에 위치하며, 3·6·9시 방향에 자리한 3개의 선버스트(sunburst) 다이얼을 통해 빠르고 직관적으

### BVLGARI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스위스 뇌샤텔(Neuchâtel) 본사와 더불어 불가리는 세누레지에(Saignelégier)에 워치메이킹 매뉴팩처, 르 생티에(Le Sentier)와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에 오토 로로제리 무브먼트 매뉴팩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4백여 명이 스위스 워치메이킹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중 에디터가 방문한 르 생티에 매뉴팩처는 제랄드 젤타와 다니엘 로스라는 2명의 뛰어난 워치메이커가 설립한 무브먼트 매뉴팩처로 2000년 불가리 인수 후 특별하고 소중한 노하우를 개발·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약 1백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구 개발부터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품을 하우스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바 터닝 머신을 비롯해 CNC(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기계, 방전 가공(Electro-erosion)을 활용해 마이크로미터 수준(0.001mm)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플레이트와 브리지, 피니시 기어, 캠과 플랫 스프링을 생산하고, 그 이후 부품을 수작



1, 4, 5 프라저트 힐스 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소개 행사, 2, 3 불가리 옥토 로마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스카프와 부품, 6 (왼쪽부터) 불가리 옥토 로마 오토매틱과 크로노그래프 버전, 7, 8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해 착용감이 좋은 불가리 옥토 로마의 엠모스와 텡모스, 9, 10 불가리 옥토 로마 크로노그래프의 다양한 컬러 다이얼과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로 크로노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칼리버 BVL 399는 오토매틱 와인딩을 적용한 스위스 메이드 기계식 무브먼트다. 고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이 메커니즘은 착용자의 손목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와인딩하며 시간당 2만8천8백 회 진동한다. 무브먼트의 정교한 메커니즘과 섬세한 디테일은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크로노그래프 모델에서는 2개의 푸셔가 러그에 직접 연결되어 케이스에 정교하게 녹아든다. 형태, 기능, 디자인, 인체 공학적 측면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게 결합한다. 이 42mm 워치는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이해하는 심미안을 지닌 이에게 어울리며 그야말로 특별한 안목을 지닌 이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에디터의 한마디**

Octo Roma Chronograph



WATCHES & WONDERS \_ CHANEL

## 우주를 담다, 인터스텔라

SF와 시공간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사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가 2023년 사넬 인터스텔라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J12에 구현한 사넬의 우주, 그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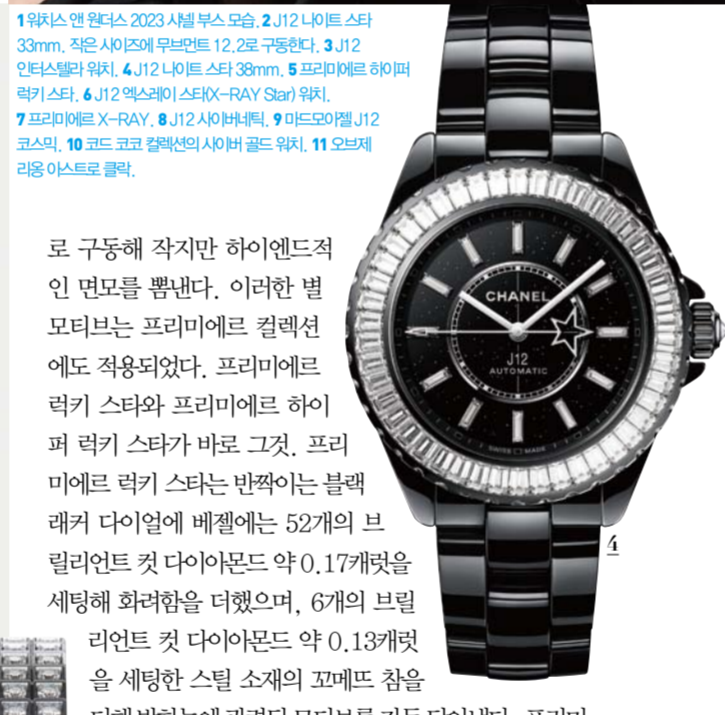


이번 워치스 엔 윈더스에서 사넬이 메인 테마로 삼은 것은 우주다. 우주여행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머나먼 미지의 세계와 같은 저 멀고 드넓은 세계를 사넬 인터스텔라 캡슐 컬렉션에 그들의 방식으로 재현한 것.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사넬 부스는 공상과학 영화를 연상시키는 미래적인 느낌으로 꾸며졌다. 천체 관측을 위해 설치한 듯 시원하게 뚫린 천장과 모델 어맨다 산체스를 본뜬 마네킹들이 사넬의 아이코닉 위치를 착용하고 맞이했다. 인터스텔라 캡슐 컬렉션 위치들에도 픽셀, 인쇄회로기판, 인광 효과, 별 형태의 장식식, 3D 로봇 등을 활용해 우주적 모티브를 가득 담았다. J12, 프리미에르, 보이, 프렌드, 코드 코코 위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 독보적인 이번 컬렉션에는 워치 브랜드의 기술력을 보여줄 가장 상징적인 제품인 오토 오를로지 한정판도 포함되어 있다.

### 밤하늘의 별과 우주, 그 영원함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이번 인터스텔라 컬렉션의 이름도 그대로 붙인 J12 인터스텔라 위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6

개의 다이아몬드와 이벤추리로 반짝이는 블랙 레커 다이얼에 그대로 담아냈으며, 초를 나타내는 핸즈 끝에 별 모티브를 달아 해석이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에는 '한정판(Limited Edition)' 문구를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까지 견고한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했으며, 사넬 공동 소유의 스위스 케니시(Kenissi) 매뉴팩처가 제작한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2.1로 작동한다. 이러한 별 모티브는 이번 인터스텔라 컬렉션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메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J12 나이트 스타(Night Star) 역시 블랙 글리터 효과를 준 다이얼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초침 핸즈에 별 모티브를 더했다. 여기에 베젤에 총 5.46캐럿의 46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38mm와 33mm,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특히 33mm는 COSC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셸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칼리버 12.2



1 워치스 엔 윈더스 2023 사넬 부스 모습, 2 J12 나이트 스타 33mm, 작은 사이즈에 무브먼트 12.2로 구동한다, 3 J12 인터스텔라 위치, 4 J12 나이트 스타 38mm, 5 프리미에르 하이퍼 렉티 스타, 6 J12 엑스레이 스타(X-RAY Star) 위치, 7 프리미에르 X-RAY, 8 J12 사이버네틱, 9 마드모아젤 J12 코스믹, 10 코드 코코 컬렉션의 사이버 골드 위치, 11 오프브 리옹 아스트로 클락.

로 구동해 작지만 하이엔드적인 면모를 뽐낸다. 이러한 별 모티브는 프리미에르 컬렉션에도 적용되었다. 프리미에르 렉티 스타와 프리미에르 하이퍼 렉티 스타가 바로 그것. 프리미에르 렉티 스타는 반짝이는 블랙 레커 다이얼에 베젤에는 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17캐럿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으며, 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13캐럿을 세팅한 스틸 소재의 꼬페르 참을 더해 밤하늘에 관련된 모티브를 가득 담아냈다. 프리미에르 하이퍼 렉티 스타의 경우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총 0.38캐럿의 1백1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다이얼을 매치했다. 거기에 총 0.13캐럿의 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꼬페르 참을 더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프리미에르를 즐길 수 있다.

### 섬세한 디자인 감각으로 표현한 그래픽적 아름다움

인터스텔라 컬렉션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모티브는 우주를 그래픽적으로 해석해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모자이크 스타일의 제품들이다. 세라믹 케이스의 일부를 도려낸 듯한 화이트 픽셀 모티브를 베젤과 레커 다이얼의 블랙 컬러와 적절하게 매치해 그래픽적인 느낌을 완성한 J12 사이버네틱(Cybernetic)을 시작으로 화이트 세라믹 대신 다이아몬드로 픽셀 모티브를 완성해 더욱 신비스럽고 화려한 느낌을 더한 J12 하이퍼 사



### 투명함에 대한 노하우

이번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중 하나는 사넬 위치가 구현한 투명함이다. 스키텐트 위치 등 속이 보이는 투명한 디자인은 흔하지만 사넬은 이 투명함을 위치의 케이스부터 다이얼, 브레이슬릿까지 곳곳에 녹여내고자 했다. 그 시작은 J12 엑스레이 스타(X-RAY Star)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체 시계의 몸체를 완성하는 프로즌 사파이어 크리스털이다. 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다이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음과 같은 투명하고 차가운 감성을 부여한다. 케이스는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베젤에 4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약 5.46캐럿을 세팅하고 다이얼 역시 12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0.38캐럿으로 12개의 아워 마커를 매치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구현했다. 브레이슬릿은 총 10.15캐럿의 1백38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프로즌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완성해 통일감을 부여한 점이 돋보인다. 프리미에르 컬렉션에서도 투명함을 담은 특별한 피스들을 선보였다. 프리미에르 엑스레이(X-RAY)와 프리미에르 까멜리아 엑스레이(Camélia X-RAY)다. 프리미에르 엑스레이는 기존 프리미에르만의 18K 화이트 골드 스퀘어 케이스에 사파이어 링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링크가 교차하는 투명하고 반짝이는 브레이슬릿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한 무드를 한껏 배가한다. 다이얼에는 총 약 0.49캐럿의 19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퀘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 아이코닉한 캐릭터 베리에이션

컬렉션마다 사넬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면모와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담은 코스믹 컬렉션 역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인터스텔라 컬렉션의 J12 코스믹(COSMIC) 위치를 비롯해 마드모아젤 J12 위치에서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 중 마드모아젤 J12 코스믹은 애니메이션화한 블랙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마드모아젤 실루엣으로 귀엽고 키치한 매력을 발산한다. 견고한 블랙 세라믹과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총 5.46캐럿의 46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다이얼 중앙에 위치한 마드모아젤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마드모아젤 캐릭터의 양손이 시간을 알려주는 핸즈 역할을 한다는 것. 사넬 매뉴팩처의 칼리버 12.1로 구동한다. 이런 사넬의 디자인적 위트는 프리미에르 컬렉션의 로봇 (ROBOT) 위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스믹 컬렉션의 사이버 골드 위치까지 선보이며 워치메이킹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준다. **에디터 생영민**

WATCHES & WONDERS\_IWC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탈착 오세아나

제럴드 진타가 선보인 1970년대 아이코닉한 인제너어 오토매틱 SL(Ref. 1832) 디자인 특유의 대담한 미학적 코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재해석한 워치, 인제너어 오토매틱 40, 3종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과 1종의 티타늄 모델로 구성했고,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IWC 자체 제작 32111 칼리버로 구동한다. 무엇보다 모두 자기정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연철 내부 케이스가 특징이며 10bar 방수 기능을 갖춘, 21세기를 위한 완벽한 스포츠 시계로 꼽을 수 있다. 또 IWC 최초의 세라믹 소재의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탈착 오세아나를 선보였다. 미국 해군 파일럿의 직업을 유년 시절 색사에서 영감받아 팰톤(Pantone)사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매력적인 컬러감이 돋보이며, 견고하고 정확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IWC 자체 제작 69380 칼리버로 구동한다. 문의 02-3440-5876



인제너어 오토매틱 40

WATCHES & WONDERS\_CHOPARD



L.U.C 1860



해피 스포츠 25mm

다이얼 안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다이아몬드 가장자리 쇼파드의 아이코닉 워치, 해피 쇼파드 컬렉션이 주얼리 워치를 기념해 가장 작은 버전인 25mm의 해피 쇼파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다이얼이 부드럽게 하모니를 이루며, 여기에 더할 투어 스트랩을 장착한 버전까지 추가해 대담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브랜드 아이코닉 워치인 L.U.C 1860도 공개했다. 1997년에 처음 출시된 L.U.C 컬렉션 시계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을 통해 탄생한 워치로 36.5mm 케이스에 새린 칼라의 정교한 기묘세 다이얼에 쇼파드인의 루세트 스틸 합금 소재로 제작했으며, 크로노미터 인증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6905-3390

WATCHES & WONDERS\_PATEK PHILIP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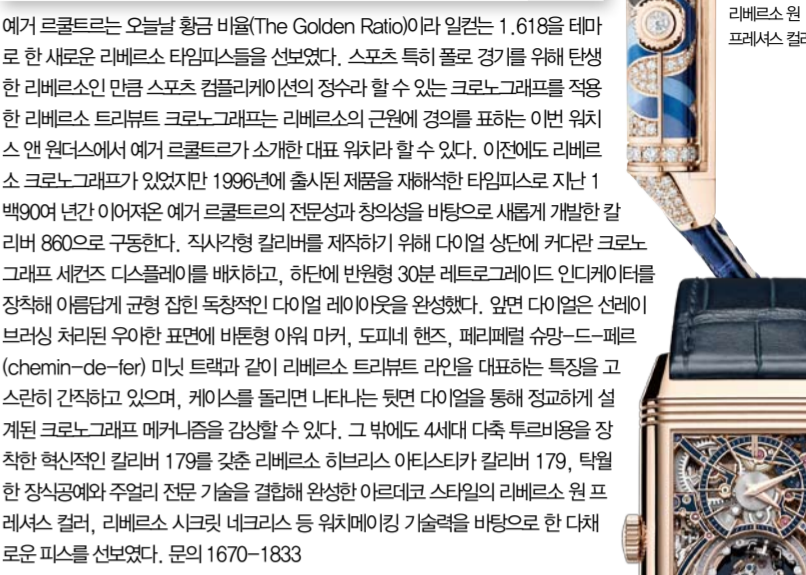
아쿠아넷 루체 애크얼 캘린더 Ref. 5261R-001



칼라트라바 Ref. 5224R-001

이번 워치스 앤 윈더스 2023에서 피텍필립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학적 특징을 갖춘 17종의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대표적인 피스 중 아쿠아넷 컬렉션의 애크얼 캘린더 버전인 아쿠아넷 루체 애크얼 캘린더 Ref. 5261R-001을 소개했다. 직경 39.9mm 21K 골드 케이스에 블루 그레이 다이얼과 스트랩으로 아름다운 여성용 컴플리케이션 워치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중앙 로터와 문패이지가 있는 애크얼 캘린더 모듈을 추가한 새로운 셸프 와인딩 칼리버 26-330 SA LU를 장착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케이스에 애크얼 캘린더 모듈이 반전되어 캘린더 표시창이 애크얼 캘린더 기능이 있는 파텍필립 컴플리케이션 다른 독특한 디스클 레어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1932년 처음 출시되어 세련된 원형 케이스와 절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변하지 않는 우아함의 전형을 지니고 있는 칼라트라바 컬렉션에서도 새로운 워치를 선보이며 입지를 공고히 했다. 칼라트라바 Ref. 5224R-001은 트레블 타임 듀얼 타임존과 오라디날 24시간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새로운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31-260 PS FUS 24H로 구동하며, 트레블 워치로 범위를 확장했다.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을 매치해 매력을 배가했으며, 워치메이커가 손으로 하나하나 조립한 로즈 골드 소재의 숫자, 아워 마커, 5분 단위 커브송 마커로 장식해 우아함을 완성했다. 문의 02-6905-3339

WATCHES & WONDERS\_JAEGER-LECOULTRE



리베르스 원 프레스스 칼러



리베르스 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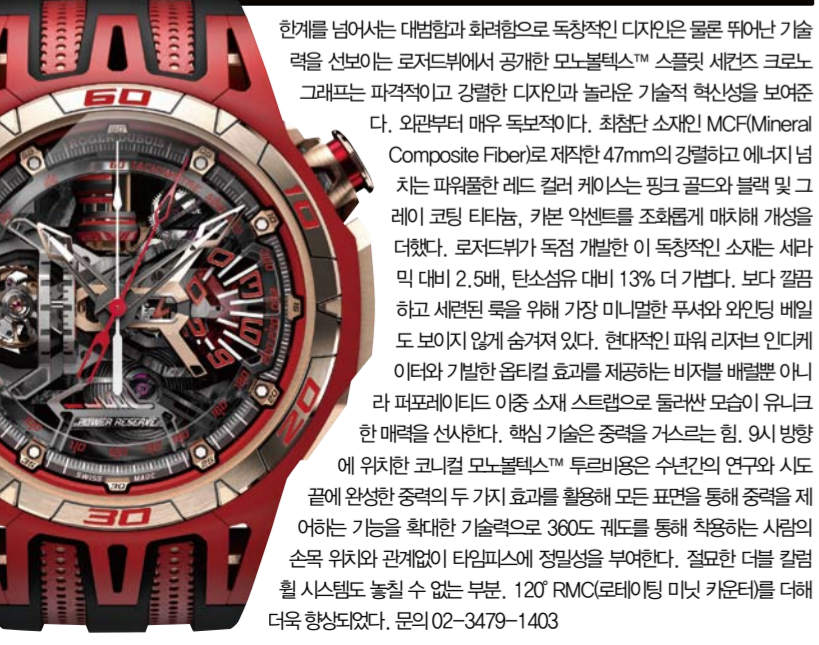
리베르스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에거 르콜트르는 오늘날 황금 비율(The Golden Ratio)이라 일컫는 1.618을 테마로 한 새로운 리베르스 타임피스들을 선보였다. 스포츠 특이 홀로 경기를 위해 탄생한 리베르스인 만큼 스포츠 컴플리케이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를 적용한 리베르스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리베르스의 근원적 경의를 표하는 이번 워치스 앤 윈더스에서 에거 르콜트르가 소개한 대표 워치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리베르스 크로노그래프가 있었지만 1996년에 출시된 제품을 재해석한 타임피스로 지난 1백90여 년간 이어져온 에거 르콜트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칼리버 860으로 구동한다. 직사각형 칼리버를 제작하기 위해 다이얼 상단에 카다만 크로노그래프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하단에 반원형 30분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터를 장착해 아름답게 균형 잡힌 독창적인 다이얼 레이아웃을 완성했다. 패턴 다이얼은 스테이브리싱 처리된 우아한 표현에 비룡형 아워 마커, 도피네 핸즈, 페리페럴 슈방-드-페르(chemin-de-fer) 마넨 트랙과 같이 리베르스 트리뷰트 라인을 대표하는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케이스를 돌리면 나타나는 뒷면 다이얼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즘을 감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4세대 다축 투르비용을 장착한 혁신적인 칼리버 179를 갖춘 리베르스 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탁월한 장식미와 주얼리 전문 기술을 결합해 완성한 아르데코 스타일의 리베르스 원 프레스스 칼러, 리베르스 시크릿 네크리스 등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피스를 선보였다. 문의 1670-1833

WATCHES & WONDERS\_ROGER DUB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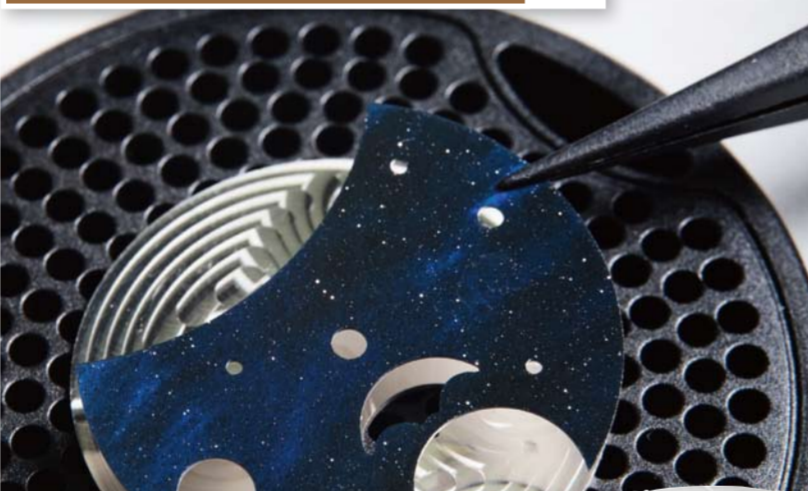


모노블럭스™ 스포츠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한계를 넘어서는 대담함과 화려함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은 물론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는 로저드뷔에서 공개한 모노블럭스™ 스포츠 세컨즈 크로노그래프는 파격적이고 강렬한 디자인과 놀라운 기술적 혁신성을 보여준다. 외관부터 매우 독보적이다. 최첨단 소재인 MCF(Mineral Composite Fiber)로 제작한 47mm의 강렬하고 예나지 넘치는 파워풀한 레드 컬러 케이스는 핑크 골드와 블랙 및 그레이 코팅 티타늄, 카본 악센트를 조화롭게 매치해 개성을 더했다. 로저드뷔가 독점 개발한 이 독창적인 소재는 세라믹 대비 2.5배, 탄소섬유 대비 13% 더 가볍다. 보다 깔끔하고 세련된 룩을 위해 가장 미묘한 푸셔와 와인딩 베일도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 현대적인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와 기발한 옵티컬 효과를 제공하는 비자를 배열뿐 아니라 페르피테드 이중 소재 스트랩으로 둘러싼 모습이 유니크한 매력을 선사한다. 핵심 기술은 중력을 거스르는 힘, 51방향에 위치한 코니컬 모노블럭스™ 투르비용은 수천년의 연구와 시도 끝에 완성한 중력의 두 가지 효과를 활용해 모든 표면을 통해 중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확대한 기술력으로 360도 궤도를 통해 착용하는 사람의 손목 위치와 관계없이 타이피스에 정밀성을 부여한다. 절묘한 더블 칼럼 힐 시스템도 놓칠 수 없는 부분. 120° RMC(로테이션 마넨 카운터)를 더해 더욱 향상되었다. 문의 02-3479-1403

WATCHES & WONDERS\_HERMÈS



슬림 데르메스 슈발 드 레전드

1978년 앙리 도리니의 상상력에서 탄생한 아쉴 뵈띠 룬은 절제미와 독창성을 함께 품고 있다. 38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70개를 세팅하고 미구인 등자 모양의 라그로 더했으며, 다이얼에서는 아벤추리, 머다오브릴, 아라코나이트, 오필로 빛어낸 우주를 만나볼 수 있다. 달의 모습을 형상화한 다이얼의 카다만 담수 머다오브릴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별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별자리에서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력이 엿보인다. 또 블루 사피이어 악아지크 스트랩이 단정한 멋을 돋보이게 하며,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 H1837로 구동한다. 심플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슬림 데르메스 슈발 드 레전드 또한 선보였다. 39.5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배열에는 52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다이얼에서는 이티스트 브누아 피에르 에머리(Benoit Pierre Emery)가 디자인한 알 모티브가 단연 눈에 띈다. 이는 공정이 까다로운 파노에 에나멜 기법으로 완성했는데, 투명하고 입체적인 효과를 선사하며, 장인의 손으로 작업한 1천백78개의 에나멜 비즈로 완성했다. 울트라-스인 에르메스 H1950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24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2-6622

WATCHES & WONDERS\_MONTBLANC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전 8000 리미티드 에디션 290-44mm

미크 메이커인 남스다이 푸르자가 최초의 몽블랑 1858 제로 옥시전 타임피스를 착용하고 에베레스트 등정 기록을 갱신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전 8000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44mm 티타늄 케이스는 무신소 상태로 조립했고, 블루나뉘형 양방향 블랙 세라믹 베젤에는 방위 기점이 표시되어 있다. 다이얼에는 2개의 3D 회전 자류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12시 방향에는 북반구를, 6시 방향에는 남반구를 배치했다. 또 케이스 뒤에 3D 컬러 레이지로 새긴 인드레이빙은 남스다이가 등장한 14개의 에이 사우전더(Eight Thousand) 봉우리의 목록과 프로필을 보여준다. 또 작년에 성공적으로 출시한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를 그레이트 칼라의 다이얼을 추가해 새롭게 선보인다. 그레이 컬러사어 패턴 다이얼은 몽블랑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 중 하나인 메르 드 글라스의 얼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케이스 백에는 빙산과 빙하 아래 물속을 탐험하는 블랙 스쿠바다이빙가 3D 인그라빙되어 있다. 문의 1877-5408

WATCHES & WONDERS\_TAG HEUER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



카레라 플라스마 2 다이아몬드 이빙기르드 크로노그래프 투르비용 44mm

태그호이어의 아이코닉 컬렉션 '카레라' 탄생 60주년을 맞아 카레라 컬렉션의 특별한 신작들이 올해 신제품 라인업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수십가지가 시공하는 글라스박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가 그중 하나다. 지름 39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1970년대 카레라 모델 특유의 동 형태 해질라이트 크로노그래프 유사한 사베이어 크로노그래프를 매치했다. 이전 모델과 차이점은 매끄러운 심미적 특성과 일관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이얼 가장자리를 따라 케이스로 이어지는 타피티어 눈금 위로 매끄럽게 흐르는 곡선 형태를 띠도록 한 것. 덕분에 타피티어를 더 큰 각도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시그니처 블루 다이얼에 블루 컷 스킨 레더 스트랩 모델, 블랙과 실버의 라바스 판다(reverse panda) 다이얼 버전으로 출시된다. 태그호이어만의 기술로 탄생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진화된 버전인 TH20-001라 명명된 호이어 02를 뒷면의 사베이어 크로노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 투르비용, 카레라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카레라 탄생 6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카레라 플라스마 2 다이아몬드 이빙기르드 크로노그래프 투르비용 44mm, 세련된 블랙으로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양극 산화 알루미늄 소재의 케이스와 베젤에 다양한 모양의 레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으로 강렬한 존재감과 화려함을 부여한다. 문의 02-548-6021

WATCHES & WONDERS\_TUDOR



블랙 베이  
다이아몬드  
워치



튜더 로열

튜더에서는 상징적인 다이아몬드 워치 블랙 베이에 최신 기술과 미적 진화를 더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리지널 블랙 베이와 동일한 사이즈인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버건디 컬러의 60분 단방향 회전 베젤을 장착했다. 1969년에 도입된 튜더 다이아몬드 워치의 상징인 스노플레이크(snowflake) 핸즈에 스위스 제조 A 등급의 슈퍼-루비노바® 코팅을 더해 헤리티지를 살렸다. 여기에 방수용으로 새틴-브러시 처리한 동 형태의 블랙 다이얼에 골드 톤 액센트를 주어 디자인적으로 돋보이도록 구성했다. 실리кон 헤어스프링을 장착하고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인증을 받은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2-U로 구동한다. 브레이슬릿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라벳 스타일 3열과 5열 링크 브레이슬릿, 러버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하며, 세 가지 모두 길이 조절이 손쉬운 튜더 T-Fit 클래스트를 장착했다. 이외에도 튜더에서는 블랙 베이 시리즈인 1954년 출시된 레퍼런스 7922 모델을 연상시키는 신제품 블랙 베이 54,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웨어러블하게 착용 가능한 네 가지 사이즈의 블랙 베이 31·36·39·41, GMT 라인에 대한 확장을 보여주는 블랙 베이 GMT를 선보였다.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과 노치 혹은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갖추었음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용도 높은 스포츠 워치 위치를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튜더 로열에 초콜릿 브라운과 새틴 컬러 다이얼을 추가해 다채로움을 더했다. 문의 02-517-3568

WATCHES & WONDERS\_PIAGET



피아제 폴로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42mm



리안라이트 아우라  
하이 주얼리 워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피아제 폴로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42mm는 단정하면서도 전하는 클래식한 특징인 총 1.88캐럿의 56개 브라운 톤 컷 블루 사파이어로 클로저를 세팅한 베젤이 눈길을 끈다. 날짜, 월, 요일, 윤년 인디케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6시 방향에 작은 문패이자가 위치한다. 1255P 울트라-신 기계식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로 구동하며, 약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이 특징이다. 교체하기 쉬운 러버 스트랩을 제공한다. 더불어 1960년부터 메종에서 개발해온 일체형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디자인으로 완성해 완벽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리안라이트 아우라 하이 주얼리 워치를 소개한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로 감싼 화려하고 대담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이며, 다이얼에까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8.1mm의 얇은 두께 역시 인상적이다. 430P 파파제 자체 제작 울트라-신 기계식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668-1874



리안라이트 아우라  
하이 주얼리 워치의 컬러 스케치

WATCHES & WONDERS\_PANERAI



라디오미르 오토  
자이르니



라디오미르 오토 자이르니



라디오미르  
퀵타이머  
골드테크™

파네라이는 전설적인 라디오미르 컬렉션을 기념하는 두 가지 타입의 워치를 출시했다. 먼저 라디오미르 퀵타이머 골드테크™는 약 80년 전에 제작된 라디오미르 오리지널 에디션의 47mm 사이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이탈리아어로 40을 뜻하는 퀵타이머는 이름에 걸맞게 40mm 케이스로 제작되었다. 워치 이름에 붙은 골드테크™는 케이스 소재를 뜻한다. 파네라이가 최초로 개발한 골드 소재이며, 플래티넘과 구리의 조합으로 강력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파네라이만의 아이코닉한 쿼스형 케이스를 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움직임에 따라 빛을 반사하는 화이트 선-브러시드 샌드위치 다이얼을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지어내며, 파네라이 워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슈퍼-루비노바® 인덱스와 숫자 같은 디테일 역시 놓치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의 워치는 라디오미르 오토 자이르니(Radiomir Otto Giorni), 오리지널 라디오미르가 지닌 유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제품으로 고풍스러운 외관이 특징이다. 1935년 직경 47mm로 제작된 최초의 라디오미르 프로토타입에서 영감받았으며, 3시 방향에 새긴 8 Giorni Brevettato는 파네라이의 뿌리인 1956년 워치에 대한 오마주다. 수작업으로 완성한 oSteel™ 케이스는 빈티지한 매력을 선사하며, 역사적으로 파네라이에서 사용하는 8일간의 동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핸드 와인딩 P.5000 칼리버를 장착했다. 문의 1670-1936

WATCHES & WONDERS\_A. LANGE & SÖHNE



무브먼트  
L156.1 칼리버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케이스 백

4년 전 랑에 운트 최내에서 최초로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감각이 돋보이며, 특별한 디자인과 정교하게 마감된 맞춤형 무브먼트를 장착한 오디세우스(Odyseus)를 선보였다. 이번 워치스 앤 워치에서는 크로노그래프 버전의 새로운 오디세우스 워치를 소개했다. 오디세우스 크로노그래프는 오디세우스 컬렉션이 쌓아온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2.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랑에 운트 최내 최초의 자동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L156.1 칼리버를 탑재했다. 이 무브먼트는 크로노그래프 핸즈를 0으로 리셋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랑에 운트 최내의 고유한 다이얼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블랙 메인 다이얼의 내부 텍스처는 일체적인 느낌을 주고, 화이트 골드 소재의 눈금을 새긴 막대형 아날로그와 서브 세컨즈 스케일은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균형감 있게 설계했다. 측정 범위가 30분에서 60분으로 확장됨에 따라 크로노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는다. 시간 측정 후 4시 방향의 제로 리셋 버튼을 작동하면 마닛 카운터는 시차 지점으로 돌아가고, 레드 크로노 핸드는 몇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동한 가리를 커버하며, 측정된 분당 한 바퀴를 완전히 회전한다. 마닛 카운터가 30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핸즈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마닛 카운터가 30분 위치를 지난 경우에는 2개의 핸즈가 모두 시계 방향으로 0으로 이동한다. 정밀 워치메이킹을 통해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 워치는 시계학적 정교함을 고려해 1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문의 02-6905-3326

WATCHES & WONDERS\_ROLEX



오이스터 퍼페추얼  
오트-마스터 42

퍼페추얼  
1908

퍼페추얼  
1908

퍼페추얼 1908는 한스 빌스도르프가 1908년 클렉스라는 이름을 스위스 브랜드에 등록한 해에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붙인 모델명이다. 절제된 맛을 전하는 이 워치는 동형이며, 부분적으로 미세한 홈이 있는 슬림한 케이스가 특징이다. 18K 옐로 골드 혹은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는 기술적 정교함을 감성할 수 있는 케이스 백을 장착했다. 버전마다 라 인텐스 화이트 또는 인텐스 블랙 컬러의 다이얼은 아라비아숫자 3·9·12와 각면 처리된 인텐스 아워 마커로 장식했다. 6시 방향에는 스물 세컨드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고, 시침 끝부분의 원 모양 디자인이 특징이며, 분침은 양 날 길 모양에 눈에 띈다. 특히 이중 폴딩 클래스트인 듀얼 클래스트가 장착된 브라운 또는 블랙 엘라게이트 스트랩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직경은 39mm이며, 칼리버 7140을 탑재했다. 또 다른 피스인 오이스터 퍼페추얼 오트-마스터 42는 강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소재인 RLX 티타늄 소재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케이스 분체 측면, 브레이슬릿 링크가 장지리, 클래스트 커버 측면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한 새틴 마감 처리가 돋보인다. 양방향 회전 베젤에 양각 숫자와 눈금을 풀리시 처리한 매트 블랙 세라믹 소재의 세라크롬(Cerachrom) 인서트를 장착해 2019년 선보인 오리지널 모델 디자인을 계승했다. 정교한 새틴 마감의 인텐스 블랙 다이얼로 우아함을 더했고,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에는 이지 링크 컴포트 앵커스틴 링크가 장착되어 있다. 최상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3235를 탑재했다. 문의 02-2112-1251

WATCHES & WONDERS\_VAN CLEEF & ARPELS



아슈빌 워치

베를리 워치

반클리프 아펠은 골드 비즈로 표현한 유려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베를리 워치를 선보였다. 두 줄로 이루어진 골드 비즈는 머리 폴리싱 처리한 로즈 골드 혹은 화이트 골드이며,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케이스 측면을 감싸고 있다. 라운드 형태의 글라스 아래 다이얼은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나 기요세 기법의 로즈 골드 또는 머더오브필로 장식해 단아한 맛을 전한다. 23mm 직경의 모델 4개, 30mm 직경의 모델 1개로 총 다섯 가지 모델을 출시했다. 피스마다 교체 가능한 엘라게이트 스트랩을 제공하고 손목을 피부처럼 감싸며 모든 움직임과 하나가 되는 훌륭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또 DO에서 F에 이르는 컬러 등급과 IF부터 VVS2에 해당하는 최상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워치를 완성했다. 시침을 설정하는 푸시 버튼은 착용 시 보이지 않도록 케이스 후면에 배치했다. 아 슈빌 워치는 블루 사파이어로 제작된 버전과 핑크 사파이어로 제작된 버전, 총 2점을 선보인다. 블루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다이얼 주변을 양면처럼 장식해 그 자체로 화려함을 드러낸다. 핑크 사파이어로 컬러 그레이데이션을 표현해 감칠맛을 더하면서 다채로운 톤을 연출한다. 또 갖가지 배향의 젤스톤 세팅 기법으로 풍성한 볼륨과 광택을 선사한다. 스위스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877-4128

WATCHES & WONDERS\_VACHERON CONSTANTIN



트래디셔널 투르비용  
레트로 그레이트 데이트  
오픈 피스

레트로그레이트  
레트로그레이트  
데이-데이트

칼리버 2162 R31

이방기근듯한 미학적 표현과 기계적 정교함에 대한 요구, 그리고 독창적 전문 기술을 응집한 워치인 TRAC 디스플레이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트 데이트 오픈 피스를 공했다. TRAC 표면 처리 기법으로 완성한 슬레이트 그레이트 컬러의 2162 R31 무브먼트를 시계 앞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픈 피스 디자인은 기계적 시계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레트로 그레이트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플레이트 상단의 수직 핸드 브러시 처리, 그리고 하단의 기요세 기법이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지어낸다. 직경 41mm에 18K 5N 핑크 골드로 제작했다. 패트리오 나 레트로그레이트 데이-데이트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특별한 레트로그레이트 디스플레이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직경 42.5mm 950 플래티넘 케이스와 우아한 품격을 드러내는 새틴 핑크 컬러 다이얼의 조합이 돋보인다. 시인당 2인8천 8백 회 진동하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R31 R7/3으로 구동하며, 약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1877-4306

WATCHES & WONDERS\_HUBLOT



스퀘어 벵  
다이아몬드

스퀘어 벵  
세라믹

워블로는 지난 2017년 출시된 MP-09에 이은 박방 MP-13을 가장 먼저 선보인다. 워블로만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타임피스로 최초 투르비용과 레트로그레이트 디스플레이,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담았다. 워블로는 듀얼 투르비용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워치메이커로 MP-13은 이를 확실하게 증명했다. 1분마다 한 바퀴를 회전하는 축과 30초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 축을 갖춰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피드를 구현했다. 스텝레전 처리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을 더해 기존 투르비용 워치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가벼운 무게를 선사하는 것 또한 특징이다. 또 다른 타임피스들에서는 소재에 대한 변주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지난해 제네바에서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스퀘어 벵 유니코가 여덟 가지 특별한 버전으로 돌아온 것. 티타늄, 화이트 골드, 킹 골드 소재 네 가지 세팅 레펠로 완성해 총 8개의 레펠로로 만날 수 있다. 이 중 네 번째 레펠은 하이 주얼리 나 작품 수준이라 할 만큼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케이스 전체는 총 2백85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했고 베젤 및 다이얼까지 총 약 1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이외에도 스퀘어 벵 유니코의 사파이어 및 세라믹 소재 버전의 세 가지 에디션도 추가했다. 박방 유니코 사파이어, 화이트 세라믹, 블랙 세라믹이 바로 그것. 이번 워블로 컬렉션들은 수작업의 마음은 또 한 번 설계가 하기에 충성한다. 문의 02-2118-6208

#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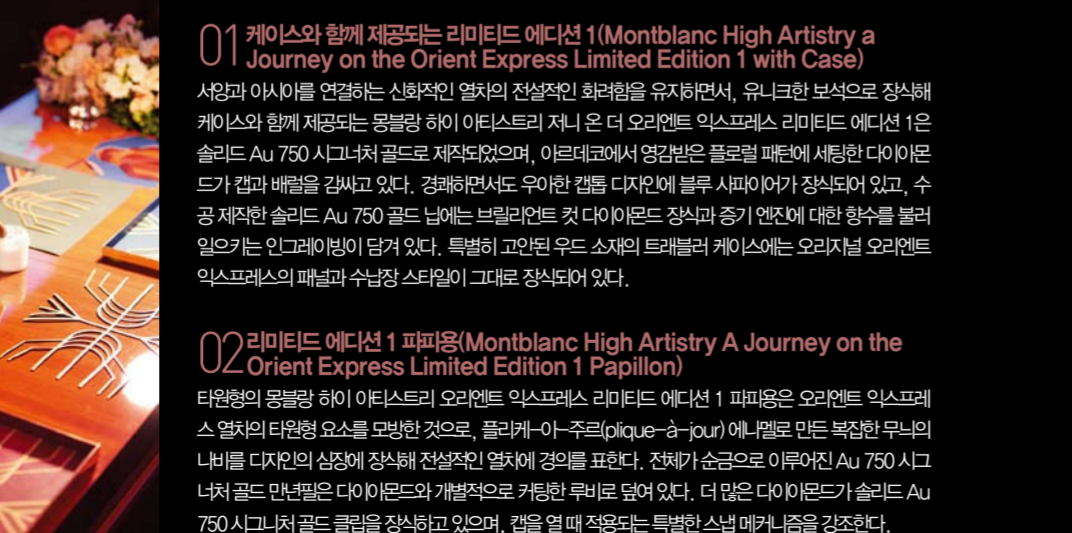
빛나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으로

만년필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컬렉션을 선보이는 몽블랑의 하이 아티스트리 에디션. 이 작품을 만나는 순간 예술적인 디테일, 유니크한 디자인, 특별한 장인 정신에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탁월한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가장 최근의 테마는 지난 4월 파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The Orient Express)다. 몽블랑의 팬은 언제나 경이롭다.



## 우아하고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

1883년 파리에서 처음 운행하기 시작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고풍적인 안락함을 선사하는 화려한 기구와 세계 최고의 요리가 어우러진 이 열차는 평범한 열차가 아니라, 19세기 말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였으며, 그 시대의 로망이기도 했다. 수많은 유명인이 이 전설적인 열차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유럽 횡단 여행을 즐겼는데, 이 열차는 문화작품의 배경으로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유명한 작가와 감독 등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열차에서 영감을 얻었고, 애거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이르러 대중문화에서 완전히 정점을 찍었다. 이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몽블랑의 하이 아티스트리 에디션들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 새로운 시대의 여행자들 역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마법을 몽블랑이라는 전설적인 브랜드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여행의 아이코닉한 남긴 풍부한 역사와 디자인의 위대한 유산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에디션 (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Edition), 섬세한 장인 정신으로 하이 주얼리 이상의 품격과 럭셔리함을 보여주는 이 만년필 컬렉션은 여행의 아이코닉한 남긴 풍부한 역사와 디자인의 위대한 유산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며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 01 케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1(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1 with Case)

사랑과 애사를 연결하는 신화적인 열차의 전설적인 화려함을 유지하면서, 유니크한 보석으로 장식해 케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1은 슬리드 Au 750 시그니처 골드로 제작되었으며,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플로랄 패턴에 세팅한 다이아몬드 가 캡과 배럴을 감싸고 있다.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캡통 디자인에 블루 사파이어가 장식되어 있고, 수공 제작된 슬리드 Au 750 골드 님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장식과 증기 엔진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인그레이빙이 담겨 있다. 특별히 고안된 우드 소재의 트래블러 케이스에는 오리지널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패플과 수납장 스타일이 그대로 장식되어 있다.

## 02 리미티드 에디션 1 파피용(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1 Papillon)

타원형의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1 파피용은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열차의 타원형 요소를 모방한 것으로, 플리케-아-주르(plique-à-jour) 애플로 만든 복잡한 무늬의 나뭇잎 디자인의 상징에 장식해 전설적인 열차에 경의를 표한다. 전체가 수공으로 이루어진 Au 750 시그니처 골드 만년필은 다이아몬드와 개별적으로 커팅된 루비로 덮여 있다. 더 많은 다이아몬드가 슬리드 Au 750 시그니처 골드 클립을 장식하고 있으며, 캡을 열 때 적용되는 특별한 스냅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 03 리미티드 에디션 5(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5)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5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열차의 장식 커브 패턴을 반영해 슬리드 Au 750 시그니처 골드 및 손으로 조각한 레드 칼세도니 스톤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패턴을 통해 20세기 초의 우아한 스타일을 표현한다. 금과 다이아몬드, 칼세도니로 구성된 캡은 특별한 스냅 오픈 메커니즘과 레드 칼세도니로 장식된 슬리드 Au 750 시그니처 골드 클립을 감추고 있다. 화이트 칼세도니 스톤으로 제작된 둥근 모양의 캡톱은 아이보리 컬러의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차량에서 보이는 돛 모양 상부를 떠올리게 한다.

## 04 리미티드 에디션 10(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10)

애거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는 1934년 발표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는 범죄 소설에서 이 열차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들었다.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10은 소설 속 시간의 디테일을 다수 참고해 디자인되었다. 캡과 배럴은 스타인드 사파이어 우드로 제작했으며, 르네 프루의 우드 마트리, 르네 칼리크의 몰딩 글라스와 실버인 레일을 포함한 이 열차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본뜬 수공 제작 골드 리프와 크리스털 플라워 엔레이로 장식되어 있다. 화이트 칼세도니 소재의 캡톱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풍성함으로 윤곽이 드러난 슬리드 Au 750 골드에 몽블랑 엠블럼과 함께 장식된다.

## 05 리미티드 에디션 83(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83)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83은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등장한 1883년 10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단 83점만 선보이며, 당시 최첨단 기술 부품과 기능을 갖추고 여행의 혁신을 이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내뿜는 불가사의한 느낌의 연기로 훨씬 기민하게 영감을 얻었다. 블랙 레커로 이루어진 캡과 배럴의 디자인은 증기 엔진의 철 소재 기계 부품을 떠올리게 한다. 부분적으로 로동으로 코팅하고 사파이어로 장식한 슬리드 Au 750 시그니처 골드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비주와 사이드 레일을 나타낸다. 엔진에서 작동하는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한정인 캡은 마더오브밀 소재의 몽블랑 엠블럼으로 장식되어, 특별한 스냅 메커니즘으로 열린다. 열차 내부의 화려한 실내장식은 차량 외부의 우아한 미드나잇 블루, 아이보리, 골드 라버리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이에



1 미치 간혹물을 짓는 것과 같은 정교함, 하이 주얼리나 워치를 만드는 것과 같은 섬세함, 그리고 환상적인 영혼을 보는 듯한 화려함까지. 장인 정신이 장구한 위대한 유산을 담은 것이 바로 몽블랑의 하이 아티스트리 에디션이다. 2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83 작업 과정. 정교한 스키퍼와 모험을 이용해 하이 주얼리와 같은 섬세한 공정이 이루어진다. 3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시트 커브 문양을 모티브로 한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5. 화이트와 레드와 조화가 사용된다. 4, 5 프라피용하고 우아했던 파리 행사에서 선보인 다양한 이쁜트. 6-8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중 하나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1 파피용과 작업 과정. 측면의 문을 열면 나타나는 파피용 나뭇잎가 탄생을 지켜본다. 9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1의 럭셔리한 시계 케이스. 10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5의 협 우를 열린 시계가 나온다. 11, 12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열차의 외관과 이 색상을 적용한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333. 미드나잇 블루와 아이보리, 골드 라버리 등이 어우러져 드라마틱한 색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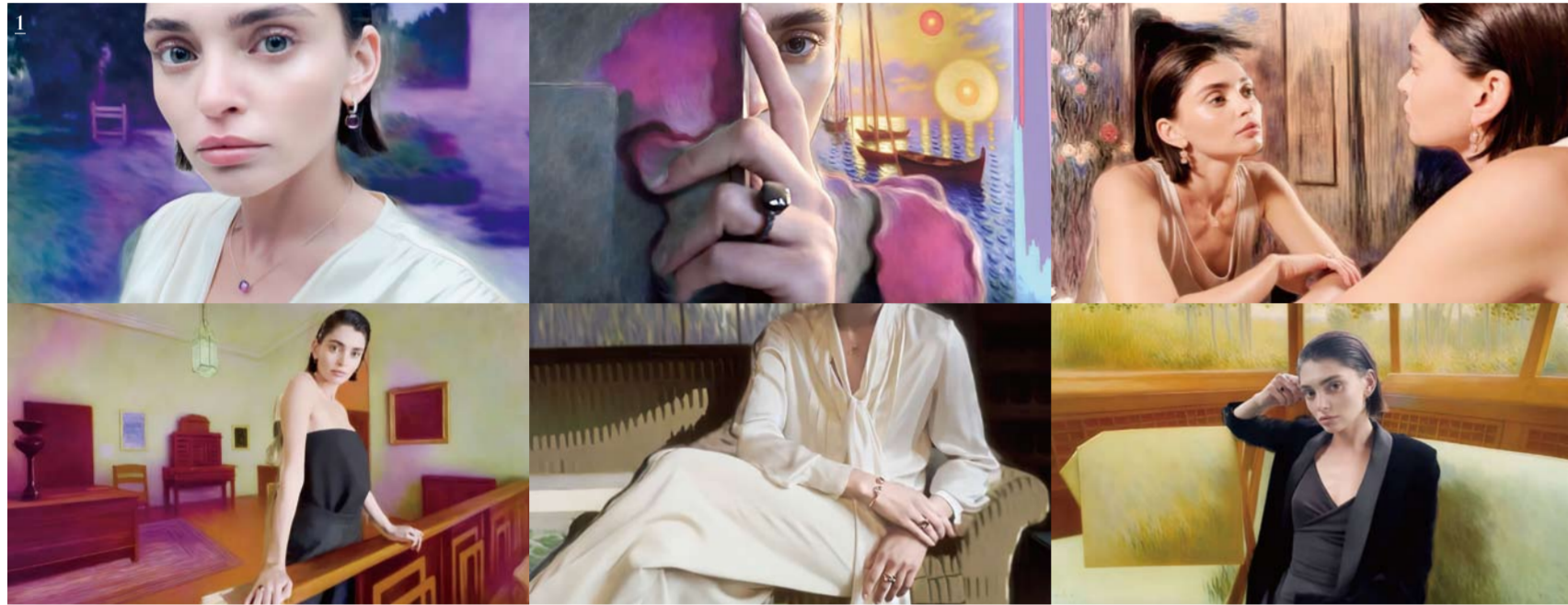


6 디선의 캡톱과 콘의 모양 및 색상에 영감을 주었다. 캡에는 엔진의 최고 속력을 나타내는 'vitesse limite', '140km/h' 문구가 인레이 인그레이빙되어 있다. 7 리미티드 에디션 333(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333)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유럽의 계곡과 광야를 가로지르며, 미드나잇 블루와 아이보리, 골드 라버리 등 인상적인 색상 조합의 럭셔리한 차량 외부를 통해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독특한 모습의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333의 캡과 배럴의 조합으로 잘 표현되었으며, 피팅을 위한 골드 장식 반투명 블루 레커, 정교한 슬리드 Au 750 시그니처 골드 로동 스키퍼 레몬 오버레이와 페어링되어 열차 안 화려한 금속 선반을 떠올리게 한다. 캡톱에는 블랙 오크스 인에 마더오브밀 소재의 몽블랑 엠블럼이 장식되어 있다. 8 리미티드 에디션 1883(Montblanc High Artistry a Journey on the Orient Express Limited Edition 1883) 열차의 최초 운행을 기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숫자에서 영감을 받은, 몽블랑 하이 아티스트리 어 제니 온 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에디션 1883의 캡과 배럴은 미드나잇 블루 프레스드 레진으로 완성했으며,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컬러와 비슷한 아이보리 프레스드 레진 소재의 몽블랑 엠블럼으로 장식되어 있다. 옐로 골드 코팅 캡 링은 클래식 마이스터스틱 149 엠블럼이 특징이다. 캡 옆면에는 르네 프루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우아하게 적용되어 있고, 슬리드 Au 750 옐로 골드 님의 인그레이빙은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에서 선보이는 르네 프루의 아르데코 플라워 패턴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았다.



# Nudo Crafted Emotions

지난 4월, 밀라노에서는 포멜라토의 누도 컬렉션에 경의를 표하는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다. 밀라노 출신 아티스트인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와 포멜라토의 누도 컬렉션이 만나 완성된 영상. 그 인에는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는 여성의 본질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 포멜라토의 시작

1967년 밀라노의 금세공사 집안에서 시작된 포멜라토는 여성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탄생했다. 금고에 보관해놓고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패션으로서 프레스스 이티 투 웨어 주얼리를 제안하고자 한 것. 미니멀, 하이 켈러티, 그리고 핸드 크래프트로 정의되는 이탤리언 에티튜드를 담은 주얼리로 사랑받기 시작해, 1990년대에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밝고 뚜렷한 컬러를 담은 젬스톤 주얼리로 또 한번 주목받았다. 그룹 CEO 사비나 벨리(Sabina Belli)는 "주얼리가 권력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파워를 지닌 젬스톤들로 현대 여성들과 소통하고 있고, 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 까사 포멜라토

밀라노 시내에서 남쪽에 위치한 베라 37번지(Via Neera 37)에는 포멜라토 본사가 자리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물소리는 배경음악처럼 깔리며 시원하고 달콤한 공간을 기대하게 만든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과 조화를 이루는 뱀부 가든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포멜라토의 세계

가 펼쳐지는데, 이곳은 매종의 모든 비하인드 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크고 작은 방으로 이루어진 오피스를 지나면 장인들의 작업실이 나온다. 경력 35년 장인부터 갓 졸업한 새내기까지 1백 명 이상의 장인들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부터 피니싱까지 모두 이곳에서 작업한다(에디터가 방문한 시점에는 곧 있을 간 국제영화제를 위한 포멜라토의 하이 주얼리 피스들이 마지막 손질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멜라토 본사가 자리하기 전 이곳은 달콤한 초콜릿 공장이었다고, 2013년 케어링 그룹으로 흡수되고, 커진 몸집만큼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내부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이곳에는 매뉴팩처만 남고 세일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쇼룸 등은 밀라노 시내로 옮길 예정이다.

## 각기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유색 젬스톤의 힘

포멜라토의 여러 컬렉션 중 보자마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누도 컬렉션은 생생한 컬러 젬스톤이 매력적이다. 특히 스톤을 받치는 프롱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해 모던하고 심플한 멋이 느껴지며, 여러 개를 레이어 드하면 마치 사랑 다발처럼 보여 행복감을 선사한다.

지난 4월 3일 밀라노에서는 누도 컬렉션의 세계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아트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다. 밀라노 출신의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Alberto Maria Colombo)가 누도 컬렉션을 해석해 영상으로 표현한 이 프로젝트는 젬스톤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감정과 밀라노의 크래프트맨십, 예술, AI, 그리고 정교한 주얼리가 만나 완성되었다. 포멜라토의 젬 마스터 스테파노 코르테시(Stefano Cortesi)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젬스톤을 찾는 데 인생을 바쳤으며, 젬스톤이 얼마나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지를 열정적으로 알려졌다. 누도는 진부함을 깬 대담하고 차별화된 컬렉션이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누도와 누도의 컬러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포착했다.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가 자신의 예술적 시각을 통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각 젬스톤의 본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목격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콜롬보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10개의 누도 젬스톤을 선택했고, 각각의 젬스톤에서 느낀 감정을 몰입감 있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가 선택한 젬스톤과 감정은 로즈 쿼츠와 공감, 프레지오라이트와 집중, 에미시스트와 야망, 가닛과 강렬함, 레몬 쿼츠와 희망, 화이트 토파즈와 감사 등이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융합되어 마법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누도 젬스톤이 지닌 생생한 본질을 드러내준다. 이 영상은 1930년대 밀라노 시내에 위치해 도시를 상징하는 야망가르드한 매력을 발산한 것으로 유명한 빌라 네키(Villa Necchi)에서 촬영했다. 작품 속 모델은 젬스톤을 세팅한 누도 주얼리를 착용하고 빌라 네키 주위를 거닐며 컬러로 가득한 다채로운 시각적 여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빌라 네키에서 영감을 촬영한 다음 이를 AI로 가공하고, 인상주의 색채 코드와 미학을 동원해 상상의 세계에서 뛰어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여성들의 초상화를 그려냈다. 인상주의는 순수한 색채의 느낌을 얻기 위해 아카데미즘 회화의 규칙을 깬 미술 사조이기에, 통념을 깨는 누도 컬렉션의 성과라고 잘 맞아떨어진다.



## interview with\_ ALBERTO MARIA COLOMBO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전통적인 주얼리의 통념을 거부해온 포멜라토의 DNA와 아티스트의 독특한 작업 방식이 만나 이루어진 아트 프로젝트, <스타일 조션일보>가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1 누도 컬렉션에서 받은 영감으로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가 작업한 영상, 2, 3 누도 컬렉션의 다양한 컬러스톤과 작업 과정, 4 밀라노 출신의 아티스트 알베르토 마리아 콜롬보, 5 에미시스트와 화이트 토파즈를 세팅한 누도 컬렉션, 6 로즈 쿼츠를 세팅한 누도 컬렉션, 7 블루 토파즈를 세팅한 누도 컬렉션.

**Stylechosun(이하 SC)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번 작품은 포멜라토가 그리는 여성의 자아와 그녀가 사랑한 누도 주얼리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은 흥미진진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강하다고 느낀다. 또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 자신의 개성과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타협, 선입견, 비판은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꿈을 품고 거기 몰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번 작품은 자신의 감정을 오토이 받아들이라는 선언과도 같다.

**SC 누도 컬렉션의 어떤 점에서 영감을 받아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누도'라는 이름에서 시작해 '프롱이 없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컬렉션의 모든 면이 자신의 개성과 진정성, 다채로운 색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든 여성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큰

영감을 받았다. AI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을 예술 도구로 활용해 독창적인 컨템퍼러리 예술 작품을 만들려는 의도로 접근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방향은 각 젬스톤이 대변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비주얼을 창조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SC 영감을 통해 포멜라토의 고객들, 그리고 당신의 직업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술가는 자신의 비전과 미학을 확장하기 위해 기술의 진화를 끊임 없이 파악해야 하며, 이를 작업에 반영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목표다. AI처럼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정제되지 않은 기술도 충분한 경험과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잘 활용하면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SC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밀라노의 크래프트맨십, 정교한 주얼리, 그리고 예술과 시의 만남이라 정의했다. 최근 한국**



에서는 대화형 AI 챗봇'이 등장해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시장을 위협하면서 AI의 능력과 역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예술에서 AI의 접목은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이고 도전일 듯한데, 당신에게는 어떠한가? 나에게 AI는 예술가, 기술자, 작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각자에게 달렸다. AI가 자신의 일을 대체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결국 인간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AI라는 도구가 선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소수의 지적인 전문가들에게 달렸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잘 활용한다면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AI가 일상 업무에 적용되면서 직업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SC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아티스티는 컬러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에 인상주의의 색채 코드와 미학적 접근 방식을 녹였다고 했는데, 많은 예술 시조 중 인상주의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밀라노와 포멜라토와의 접점을 찾아 인상주의 색채로 표현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인상주의는 현실을 단순히 고전적으로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추상적인 컬러와 형태를 사용해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관으로 감정을 표현한 최초의 미술 사조다. 그래서 포멜라토 팀과 함께 클로드 모네 같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얻은 영감을 작업의 시작점으로 삼아 컬러와 형태를 매개체로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며 현실을 재해석했다. 모든 누도 젬스톤은 온전한 세계와 컬러를 품고 있기에 나는 AI의 힘을 빌려 이를 드러내고 이야기로 풀어내며 젬스톤 각각에 목소리를 부여했다.

**SC 빌라 네키에서 실제 모델 촬영 후 AI로 가공하고 색채를 입히는 후반 작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지?** 영상 촬영부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 첫 단계에서는 인상주의 회화 스타일을 AI에 학습시킨 다음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컬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AI가 영상의 각 프레임을 그림으로 렌더링하게 했다. 그 결과 현실이 추상으로 바뀌는 움직임은 그림이 탄생했다.

**SC 평소 작품의 영감을 어디서 얻는가? 지금 준비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일의 특성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최대한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강아지와 숲을 산책하거나 알프스산맥으로 뻗었던 일종의 짧은 여행을 떠난다. 자연은 단지 도피 장소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다. 모든 작업에서 기술과 자연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며, 이에 따라 AI를 사용해 우리 주위의 자연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결코 작품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모든 형태의 자연에 작업의 초점을 맞추고, 신기술을 활용해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미학을 통해 자연을 표현하고자 끊임 없이 노력한다. 글 장미(밀라노 현지 기자)

# The dazzling moments at the Han River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한강 잠수교 조명이 커지며 루이 비통의 프리폴(pre-fall) 쇼가 막을 올렸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생생한 현장에서 펼쳐진 크고 작은 올림의 서사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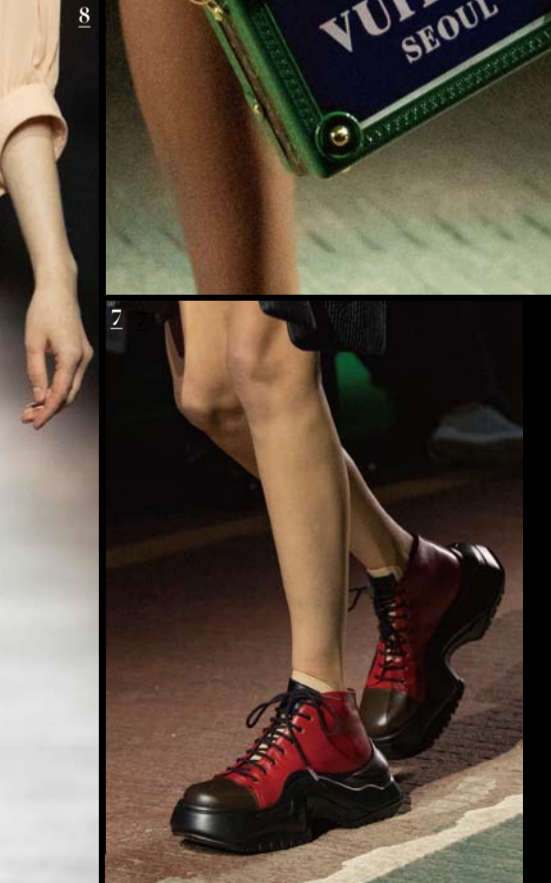
1 잠수교에 펼쳐진 파인업 런웨이, 2 파스트로 등장한 <오징어 게임>의 히로인, 배우이자 모델 정호연, 3 쇼의 파날레를 장식한 모델 최소라, 4 워크웨어 스타일의 비버드한 레드 컬러 점프수트에 이번 시즌 키 이이템인 오버 부츠를 매치했다, 5 스포티한 보머 재킷과 루스한 팬츠에 매치한 레드 부츠가 돋보이는 룩, 6 '사슴'을 새긴 루이 비통 백, 7 과감한 실루엣과 어글리 슈즈의 감성이 돋보이는 레드와 블랙 컬러 플러의 레이스업 슈즈, 8 꽃 장식을 더한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 포인트를 주었다, 9 뉴진스 해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0 쇼를 방문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배우 배우나.

루이 비통은 그동안 브랜드의 철학이자 출발점인 '여행의 예술(Art of Travel)'에 기반해 세계적 랜드마크에서 패션쇼를 진행하며 문화유산을 향한 경의를 표해왔다. 이번 브랜드가 과연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어떤 장소를 택할지 여러 궁금중과 추측이 난무하던 찰나, 드디어 그 장소가 공개되어 온 서울이 들썩었다. 바로 한강 잠수교. 밤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물이 떨어지는 장소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서울 시민들의 기대감은 증폭됐다. 그리고 드디어 잠수교 아래에서 쇼가 펼쳐졌고, 모든 이들이 루이 비통의 장소 선정이 탁월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관통하는 가장 큰 강이자 물줄기를 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동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강야마말로 서울의 문화와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확신한 루이 비통의 선택은 옳았다. 더불어 루이 비통 여성 컬렉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의 철학인 창조적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저력을 세계에 알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creative advisor)로 쇼 콘셉트 및 시노그래피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쇼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푸른빛 조명으로 물든 한강의 잠수교에 우리나라 전통 농악이 울려 퍼지며 쇼가 시작됐다. 곧이어 산울림의 아니 벌씨가 흘러

나오고 스타트를 장식한 <오징어 게임>의 히로인이자 모델 정호연이 첫 번째 오프닝 의상을 입고 힘찬 워킹으로 등장했다. 이어 펠 시스터즈의 '첫사랑'이 재생되며 쇼 음악에서부터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대한민국의 전통 음악,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는 잠수교에서 힘차고 역동적으로 워킹하는 모델들과 루이 비통 2023 프리폴 컬렉션 룩, 이 모든 것이 15분가량의 짧은 쇼에 모두 버무려져 하나의 완벽한 동화작용을 이뤄냈다. 한국적인 것에 서울의 문화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녹여내고자 한 루이 비통의 계획과 목표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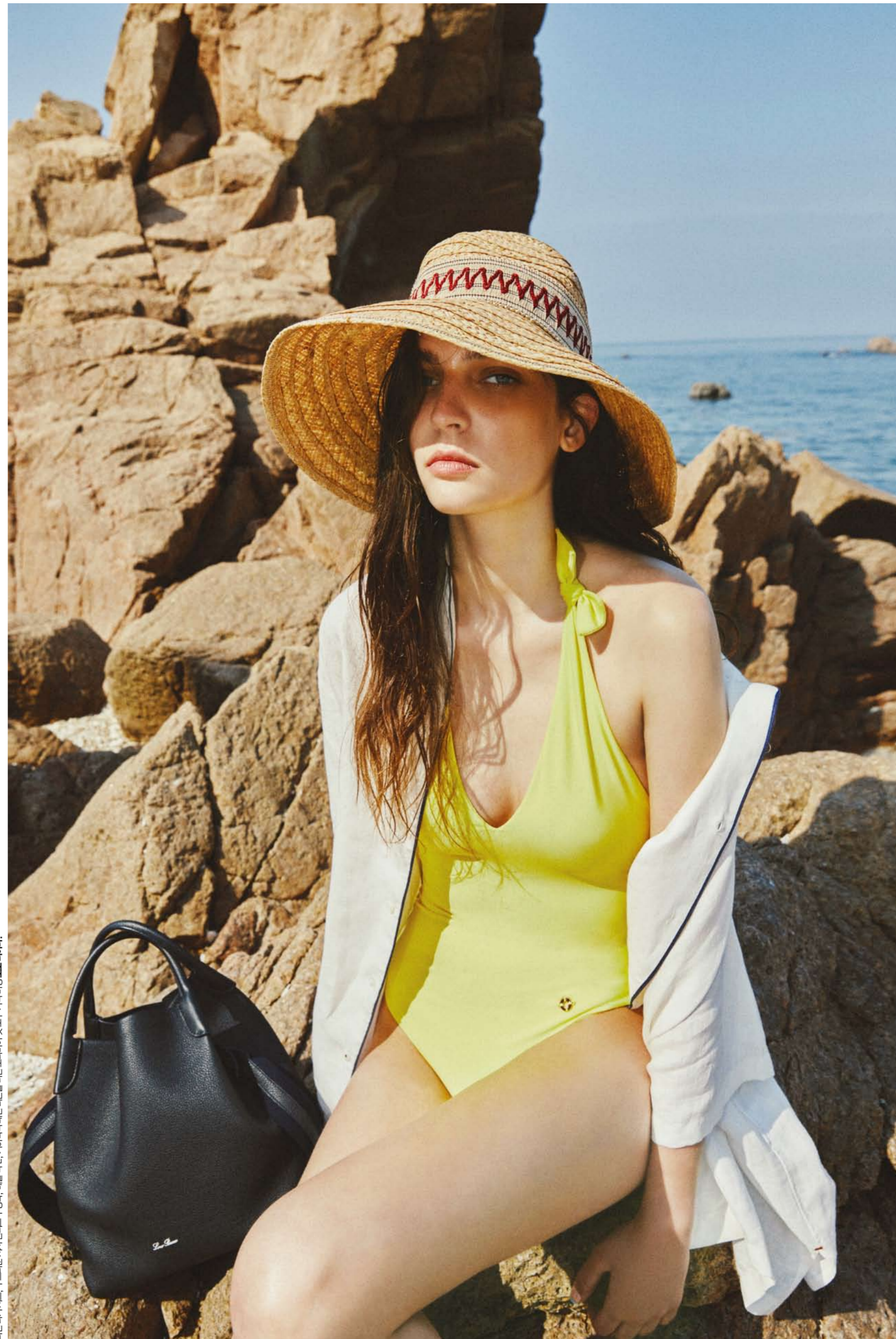
이번 루이 비통 프리폴 패션쇼는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 관광객과 서울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란 점에서 더 뜻깊다. 루이 비통은 자사 SNS 채널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설치된 LED 스크린을 통해 패션쇼를 전 세계에 생중계했고, 1백여 명의 관련 전공 학생을 패션쇼 현장에 초청해 이 모든 과정을 서울 시민과 함께했다. 쇼를 기획하고 진행한 루이 비통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 시민으로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루이 비통 2023 프리폴 쇼. 이 이벤트는 과거가 되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패션과 문화,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에디터 서영민**



조이 셔츠, 보리스 팬츠, 트리아앵글  
비키니, 크로세 빌레리나 플랫,  
엑스트라 포켓 11.5 피우지,  
플로일 프린트의 자타 피셔맨 햇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 Dream Summer

찬란한 태양, 설렘 가득한 바닷바람, 그리고 로로 피아나와 함께한 어느 여유로운 여름날 오후.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리넨타기 셔츠, 부드러운 저지 엠버스 수영복, 베일 백, 기하학적 패턴 리본을 더한 오리아비 햇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플로럴 패턴의 길리 코트, 올가  
서츠, 알버 팬츠, 플로티 모카신,  
베일 백 마이크로, 자타 피셔맨 햇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오렌지 컬러의 라나 장갑수트, 플로티 모카신, 엑스트라 포켓 L 19 파우치, 벨리 버킷백 L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모델: 다비엘의 원피스 수영복, 가브리엘 크로트 원단의 모이이 비버 티셔츠, 엑스토프라 포켓 파우치, 119의리넨 바지, 베일 백 라지, 쉐이 님은 줄다 셋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여성스러운 달리아 점프수트,  
슬리퍼 형태의 플로티 모카신,  
블라썸 소퍼 백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로로 피아나 02-6200-7799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Kailee(JS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 Modern Table

크리스탈로 현대적이면서 트렌디한 감성을 지닌 디자인을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새로운 테이블웨어 컬렉션인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제 스와로브스키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다이닝 테이블에서도 즐길 수 있다.

매 시즌 클래식하면서도 동시대적인 디자인과 독보적인 크리스탈 커팅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모던 크리스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와로브스키(Swarovski)는 주얼리뿐 아니라 홈 데코를 위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스와로브스키만의 반짝임과 크리스탈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하기 좋은 글라스 및 테이블웨어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삼페인년부터 크리스탈 와인잔에 이르기까지, 스와로브스키만의 현대적인 다이닝 글라스 컬렉션은 멋진 디너 홈 파티를 개최할 때도, 특별한 선물을 위해서도 제격이다. 이러한 스와로브스키에서 이번

에는 세계적인 포슬린 장인 기업 로젠탈(Rosenthal)과 콜라베이션해 생기 넘치는 컬러의 테이블웨어 컬렉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동안 스와로브스키에서 선보여온 글라스웨어와는 또 다른 매력의 티웨어로 우리에게 또 한번 즐거움을 선사한다.

### 다채로운 컬러의 향연

19세기 오스트리아 예술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하고 세



1 그린과 핑크의 컬러 조합이 아름다운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2 그린 컬러의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3 핑크 컬러 화병 4 팔각형 모티프로 디자인한 그린과 핑크 컬러의 플레이트 5 두꺼운 유리 신타를 담거나 머그진으로 사용해도 좋은 다양한 용도의 컵



련된 매력의 레드로 퓨처리즘 감성을 담은 이번 테이블웨어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비드한 그린과 핑크 컬러다. 여기에 모던하고 현대적인 스와로브스키만의 디자인 감성을 그대로 녹여냈다. 포슬린 장인 기업 로젠탈과 협업하면서 두 브랜드의 장점과 헤리티지를 제품에 모두 담아낸 것. 가장 돋보이는 것은 스와로브스키의 모티브인 팔각형이다. 손잡이는 물론 디자인 전반에 팔각형 모티브를 적용해 스와로브스키만의 다채로운 컷 디테일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여기에 금색 컬러 테두리의 독특한 그래픽 장식을 입혀 마치 갤러리의 작품과 같은 감성을 전한다. 뚜껑에 얽은 크리스탈 포인트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크리스탈 리드와 중앙에는 스완 각인 스탬프를 더해 현대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한층 강조했다. 티 컵 및 에스프레소 컵 세트와 두 가지 사이즈의 플레이트, 그리고 커피 포트와 화병 등 다양한 제품 라인으로 선보여 다이닝 테이블을 통일감 있게 연출 가능하며, 각각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해 리빙 공간 분위기에 맞춰 장식할 수도 있다. 문의 1522-9065 **에디터 성경민**



# collagen Pairing

어느 때보다 뜨거워 올여름 태양에 맞서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홈 케어를 위한 솔루션, 발몽의 리제너레이팅 마스크 트리트먼트가 답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더위 속 바쁜 일상이 지속되는 여름에는 몸의 체력뿐 아니라 피부 체력 역시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외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 관리에 소홀해진다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급격한 노화를 맞이하기 쉬운 것도 사실. 여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어려 보이는 매끄럽고 탱탱한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집에서 꾸준히 해주는 홈 케어가 가장 도움이 된다. 뭐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듯,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과나 스페셜 케어를 가끔 해주는 것보다 좋은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다. 좋은 제품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만큼은 원료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뛰어난 안티에이징 기술을 결합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완벽하다. 발몽은 스위스 최고의 안티에이징 센터인 발몽 클리닉을 모체로 한 스위스 셀룰라 코즈메틱 브랜드로 피부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모든 제품에 스위스 청정 자연 알프스산 원료를 사용해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발몽의 많은 제품 중 여름에 지친 피부를 달래고 급격히 떨어진 피부 컨디션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마스크 트리트먼트를 소개한다. 발몽의 리제너레이팅 마스크 트리트먼트로 브랜드의 독보적인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셀룰라와 스페셜

케어 시 관리 루틴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탄생했다. 먼저 서랍장을 열듯 고급스러운 박스부터 특별하다. 마스크 시트와 프리미엄 성분이 농축된 앰플이 5개씩 들어 있으며, 여기에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미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부 관리 클리닉에 가면 볼 수 있는 전문가적 루틴에 착안한 듯한 인상을 준다. 세안한 얼굴에 알프스 산속의 청정 빙하수로 만든 미스트를 듬뿍 뿌려 첫 단계 수분 공급을 해준 뒤 콜라겐 마스크를 30분 동안 얼굴에 올려준다. 이 콜라겐 마스크에는 높은 흡수력을 자랑하는, 발몽의 특별한 기술력으로 만든 콜라겐 성분이 가득 들어 있으며, 쫄쫄한 포물리로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완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얇고 쫄쫄한 마스크 시트는 피부에 안착했을 때 바로 밀착되어 불편하거나 무겁지 않은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유리병에 든 콜라겐 포스트 트리트먼트 앰플을 충분히 발라 마무리하면 스페셜 케어 끝. 주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하도록 도와주며, 촉촉하고 윤기 나는 화사한 피부를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안색이 유달리 지쳐 보이고 건조하거나 스페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5주간 집중 트리트먼트를 하면 몰라보게 매끈하고 탱탱해진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 발몽 리제너레이팅 마스크 트리트먼트(마스크 시트+앰플 5개)+ 미스트 60ml 85만원. 2 리제너레이팅 마스크 트리트먼트의 100% 퓨어 콜라겐으로 이뤄진 마스크 본체. 3 발몽 리스토링 퍼펙션 SPF 50 PA++++ 30ml 3025만원.

### 자외선 차단은 물론 편안한 텍스처까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뜨거운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다. 피부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 하지만 피부에 딱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차단 지수. 여기에 피부에 매일 바르는 만큼 성분도 중요하며, 발랐을 때 불편한 느낌 없이 가볍게 마무리되는 것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발몽의 시그널 자외선 차단 크림인 리스토링 퍼펙션은 SPF 50 PA++++의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추었다. 여기에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크림 타입 텍스처로 하루 종일 피부를 편안하게 해준다. 미세 필 입자로 반사판을 댄 것처럼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어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자연스러운 보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성분 역시 훌륭하다.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진 실리시움 D 겔 복합체를 함유해 완벽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 속 탄력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길어지는 외부 활동과 더위에 지친 피부를 쫄쫄하고 탱글하게 유지해준다. 올여름은 발몽 리스토링 퍼펙션으로 자외선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외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70-4352-5203 **에디터 성경민**



# Salone Del Mobile 2023

어김없이 찾아온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장 큰 디자인 축제, '살로네 델 모빌레'. 올해도 역시 많은 럭셔리 브랜드 카사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 전시와 가구를 만나볼 수 있었다. 브랜드의 정체성은 물론 장인 정신과 스타일까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카사 컬렉션에서 엿보는 살로네 델 모빌레의 2023 트렌드 하이라이트.

독창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은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세계 유수 산업 디자이너의 재능과 메종의 장인 정신을 결합해 컬렉션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올해 밀라노 가구박람회 참여하면서 새로 선보이는 신작 11점 및 스페셜 에디션 2점을 포함해 총 60점 이상의 디자인 오브제로 구성된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을 완성했다. 먼저 오브제 노마드를 론칭한 이래 컬렉션 디자이너로 지금까지 함께해온 스튜디오 루이 비통에 오이(Atelier Oï)는 이번 밀라노 전시에서 신작 4점을 선보였다. 1.2m 높이의 '스피라얼 샹들리에(Spiral Chandelier)'와 모빌 '케펠(Quezal)', 피바 램프(Piva Lamp)와 오리가미 볼(Bongami Bows)까지, 독특한 소재의 선택과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인 고유색을 잘 녹여냈다.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듀오 로 에지스(Raw Edges)는 테니스공의 곡선에서 착안해 마치 하나의 조각품과 같은 느낌을 주는 빈다 암체어 & 소파(Binda Armchair & Sofa)로 눈길을 끌었다. 밀라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 비제티(Atelier Biagetti)가 선보인 '플라워 타워(Flower Tower)'도 놓칠 수 없는 피스. 네덜란드 출신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가 청명한 여성용 모자에서 착안한 디자인의 카펠린 램프(Capeline Lamp)는 불투명한 유리 조각 3개가 물결처럼 자아내는 빛의 유혹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듀오 자넬라토/보르토토(Zanellato/Bortotto)의 바스켓 테이블(Basket Table)은 랜턴을 통해 선보인 벌집 패턴의 가죽 짜임 기법으로 완성했다. 스튜디오 루이 비통(Studio Louis Vuitton)은 이탈리아 무라노 지역 유리공예 장인들과 함께 '플라워 카라페(Flower Carafe)'와 '트위스트 글라스(Twist Glass)'에 수작업으로 모노그램 플라워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캄파냐 향제의 '코콘(Cocoon)' 체어가 실버 모자이크를 덧입힌 디스코 볼(Disco Ball)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해 눈부신 메탈 효과가 돋보이는 조각 작품인 '볼보카 소파(Bomboca Sofa)'를 선보였다. 스페셜 에디션 2점 중 하나는 바로 마크 뉴슨(Marc Newson)이 디자인한 '호기심의 트렁크(Cabinet of Curiosities)'다. 루이 비통 여행용 트렁크를 우아한 오브제로 변형시킨 작품으로, 모노그램 패턴으로 장식한 외관과 메탈에 가죽 커버를 씌운 큐브 19개로 이루어진 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8개의 큐브는 귀중품 보관을 위한 비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크 폼레스(Marc Fomes)의 노마딕 파빌리온(Nomadic Pavilion) 역시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며 루이 비통의 노마딕 간축을 전시 여장을 이어나갔다.



LOUIS VUITTON



1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전시 모습. 조명은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의 카펠린 램프(Capeline Lamp). 2 이탈리아 디자이너 듀오 자넬라토/보르토토(Zanellato/Bortotto)의 바스켓 테이블(Basket Table). 3 스튜디오 루이 비통(Studio Louis Vuitton)의 트위스트 글라스(Twist Glass). 4 로 에지스(Raw Edges)의 빈다 암체어 & 소파(Binda Armchair & Sofa). 5 마크 폼레스(Marc Fomes)의 노마딕 파빌리온(Nomadic Pavilion).



LOROPIANA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로로 피아나는 아르헨티나 출신 디자이너이자 예술가 크리스티안 모아데드(Cristián Mohaded)와 함께 '아파체타(Apacheta)'를 선보였다. 아파체타란 안데스산맥의 길과 여정을 표시하는 돌더미로 여행자들이 수년에 걸쳐 대지의 어머니인 파차마마(Pachamama)의 영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쌓아 올린 것이다. 이를 본떠 만든 조형물에 지난 컬렉션의 로로 피아나 울드 패브릭을 재사용해 만든 커버를 씌운 아파체타를 로로 피아나 밀라노 본사인 코르텔레 델라 세타(Cortile della Seta)에 설치해 장관을 이뤘다. 이와 함께 천연 소재로 만든 패브릭 소파와 의자 등 다양한 가구를 선보였다. 특히 소파는 자연에 있는 바위 같은 느낌으로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며 부드러운 로로 피아나의 천연 패브릭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더불어 모아데드가 직접 디자인한 아르카(Arca) 백을 공개했다. 고대에 옷과 귀중한 가정용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가구를 칭하는 리터어로 미니멀한 형태와 디자인에 벨벳 숏이치기족으로 마무리한 클로저가 돋보인다. 이 모두 주문 제작으로 구입 가능하다.



1 로로 피아나 밀라노 본사에 있는 아파체타. 2 크리스티안 모아데드가 디자인한 소파와 티테이블. 3 모아데드가 디자인한 아르카백. 4 가구 제작 모습.



HERMÈS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선보인 에르메스 홈 컬렉션 제품은 본질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아카이즘(archaism), 자연의 생령력, 미니멀리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 시장에 선보인 사노그래피 형태부터 기교와 화려한 요소를 전부 배제한 채 금속 막대 콘크리트 골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내는 골조와 선의 어우러짐을 보여주면서 강하고 힘찬 구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가죽과 우드 소재가 어우러진 암체어, 재해석된 1930년대 의자, 시대를 초월한 실루엣의 소파를 비롯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가구들은 공통적으로 델아샘을 통해 힘을 드러내고, 빠른 것을 통해 선명함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다. 블로운 글라스(blow glass) 기법이 적용된 미묘한 디자인의 램프,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질감을 지닌 의자용 커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래픽 패턴의 수공예 자수 러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에르메스만의 노하우로 소재 고유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돋보이도록 하거나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추구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소재를 탐색하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특히 유트 톤 컬러는 에르메스 헤리티지에 대한 경외의 의미를 담은 모티브를 표현한다. 승마 레퍼런스 이침 식사용 포슬린 테이블웨어 위에 유려한 모습으로 표현되며 상상력이 훨씬 느껴지는 러그와 플레드에서도 적용되었다. 에르메스는 이렇게 탄생한 핵심적인 디자인이 소재로부터 영감을 받고, 전문 기술의 노하우와 결합해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워지며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의 오브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전한다.

1 본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장 풍경. 2 캐시미어 100%의 핸드 스프링 앤드 다잉 및 핸드 워싱을 통해 만든 아쉬 에셀 플레드. 3 캐시미어 100%의 핸드 스프링 앤드 다잉 및 핸드 워싱을 통해 만든 아쉬 에셀 플레드. 4 프랑스 디자이너 조센 제르(Jochen Gerber)가 펠트 펜으로 스케치한 소 에르메스(Saut Hermès) 포슬린 테이블웨어. 5 에르메스 마구에서 영감을 받은 파인 데르메스(Paine d'Hermès) 동형 박스.



# DOLCE & GABB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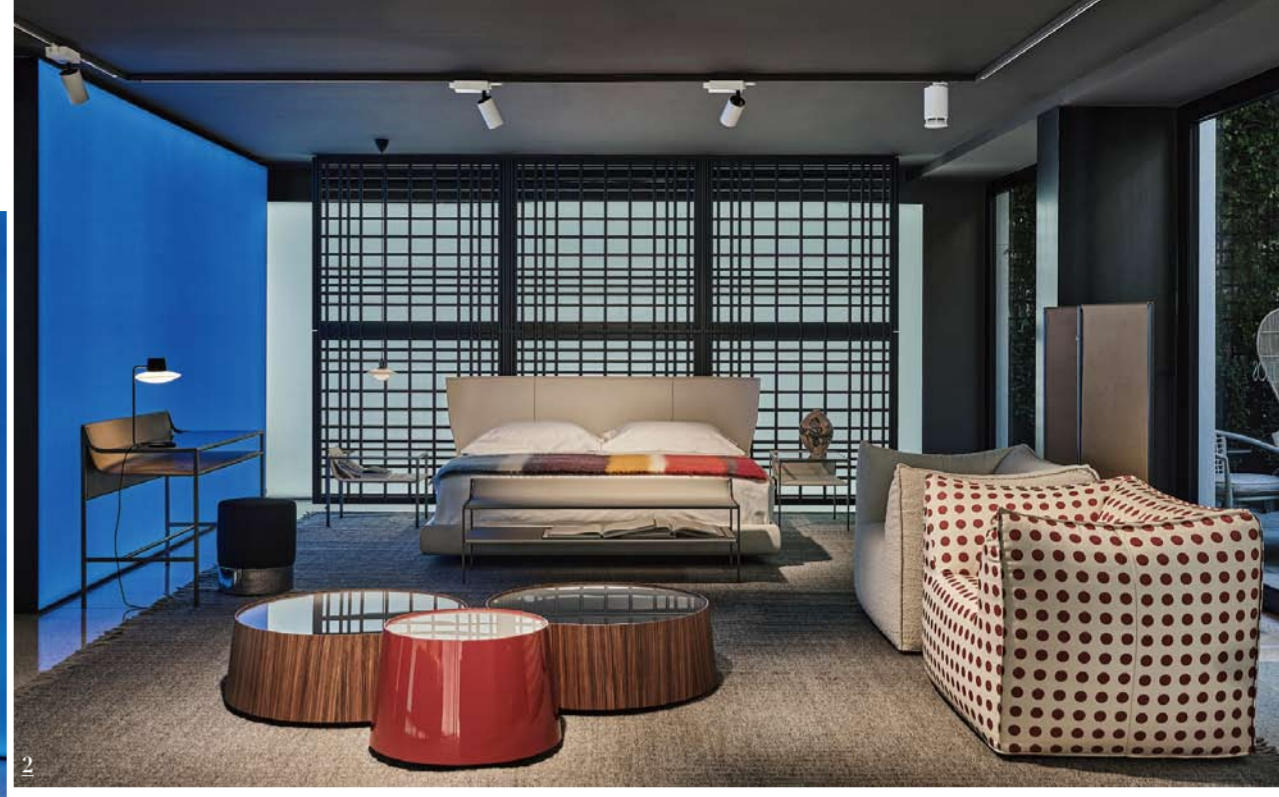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돌체앤 가바나 까사에서는 시칠리아 전통 손수레 카레토(Carretto Siciliano), 지중해의 파랑(Blu Mediterraneo), 레오파드(Leopardo), 그리고 지브라(Zebra)에 이어 DG 로고(Logo)와 오로 24K(Oro 24K)를 추가했다. 정교한 공예 예술과 이탈리아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DNA 코드에 대한 헌사의 일환으로 각각의 테마는 가구의 형태와 기능에 맞게 아우러지도록 적용되고 재해석되었다. 강력한 표현력과 정교한 선으로 각인된 DG 로고는 돌체앤가바나 테마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알파벳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로고는 이제 브랜드 역사와 정체성의 집현체이자 강력한 심상이 되었다. 이 DG 로고를 메인으로 한 모던하고 심플한 실루엣의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가 돋보였다. 오로 24K 라인인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과 기하학에서도 세련된 형식을 오마주해 화려함의 정점을 찍었다. 반짝이는 골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컬렉션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몇몇 가구를 장식한 물결무늬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정수를 할 수 있으며, 그 독창성의 뿌리는 유서 깊은 이탈리아의 전통 수공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체앤가바나의 가구는 세련된 자재와 기술적인 디자인, 리치리한 구성품과 원단의 조화, 사랑과 환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식을 통해 일상의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자극한다.

1 돌체앤가바나 DG 로고(Logo) 컬렉션으로 꾸민 공간. 2 오로 24K(Oro 24K) 컬렉션의 DG 부카네베(Bucaneve) 양치기. 3 오로 24K 컬렉션의 테이블과 잔. 4 돌체앤가바나 DG 로고 컬렉션의 커피 테이블과 잔. 5 DG 로고와 블랙 & 화이트로 모던한 양털을 주는 쿠션. 6 DG 로고 컬렉션의 실내 슬라퍼.



# B&B ITALIA

B&B 이탈리아에서는 여덟 가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2개의 메인 소파와 2개의 양치기, 2개의 디자인 테이블과 소품 테이블, 컴플라멘츠, 스토리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부 B&B 이탈리아인의 모던한 감성과 실용적인 모듈 디자인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라인인 토르텔로(Tortello) 소파와 양치기다. 영국 디자이너 에드워드 비버와 제이 오스카비의 작품으로 이틀차림 낙하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늑한 모양의 모놀리식 소파와 인라인의 고안했다. 심플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이 살아 있는 콘셉트인 디자인에 비비드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지지 구조에 재활용 폴리에틸렌을 사용해 B&B 이탈리아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까지 담았다. 부드러운 패브릭으로 덮여 불꽃감을 준 부분 역시 이 소파를 독특하게 보이도록 하는 포인트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제품은 콰이어트 라인(Quiet Lines)의 컴플라멘츠다. 침실 옆에 놓기 좋은 책상이자 벤치, 합적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임인 이 제품은 단단한 철제



구조물 안에 곡선형 달걀을 썩은 듯 디자인되어 있어 모던한 포인트를 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미적 요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스트랩, 선한 의이름매, 스크린의 경향 등 다양한 디테일을 기렸다. 우아한 곡선미는 실내 공간에 활력과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마치 막으로 헤리 오(Heiri O) 체어를 소개했다. 모니카 아르마니(Monica Armani)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사베를 초월한 스타일 아이콘 제키오(Jackie O)에 대한 오마주로 탄생했다. 깔끔한 디자인에 군더더기 없는 형태로 곡선형 목재 프레임과 일본적인 나무 프레임의 결합해 전통과 새로운 균형을 보여준다. 패브릭으로 덮인 발코 금속 베이스에 천으로 덮인 패브릭으로 완성한 제품은 무수한 마감으로 수천 가지 얼굴로 변모 가능하다. 밝은색과 검정색 브라운이 애부터 다양한 색상의 광택 레이크까지, 어떤 등반이 쿠션과 시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담보(Dambo) 시스템 소파와 에리트(Ery) 양치기, 르망테(Lemante) 스톤 테이블, 플라어 오(Fair O) 쿠튀르 체어, 테트라미(Tetrami) 스토리치 유닛까지, 여덟 가지 컬렉션에 B&B 이탈리아의 감성을 가득 담았다.



1 B&B 이탈리아 소파. 헤리 오(Heiri O) 체어가 세팅되어 있다. 2 신제품 콰이어트 라인(Quiet Lines)의 컴플라멘츠를 세팅해 둔 침실 소파. 3 토르텔로(Tortello) 소파. 4 토르텔로 양치기.



# MARNI

미르니는 이번 2023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도 두 가지 새로운 패턴을 통해 차별화된 컬렉션을 선보였다. 먼저 세라크(Serax)는 벨기에 본사를 둔 디자인 브랜드로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으며 장인 정신으로 제작한 다양한 식기, 도자기, 가구, 조명, 소품 등을 선보인다. 많은 디자이너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르니와 함께해 미드나이트 플라워 도자기 컬렉션을 선보여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한 세련된 식기 1백20파스를 완성했다. 반면 또 다른 미르니의 주인공인 런던아트 월페이퍼(Londonart Wallpaper)는 독일 디자인의 월페이퍼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2011년 니콜라 보테갈리(Nicola Bottega)가 세운 이탈리아 브랜드로 디자인에서 가장 권위 있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상급 소재를 사용하여 혁신적인 디자인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디자인 방식으로 브랜드 창립 당시부터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왔다. 이번에 미르니와 협업해 미르니 런던아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미르니가 류 컬렉션을 통해 창조해온 헤리피자를 자신 패턴들을 독점 디자인의 벽지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두 협업으로 완성된 두 가지 컬렉션을 통해 미르니는 브랜드 특유의 다채로운 색상과 소재, 패턴 등의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1 런던아트 스트롬볼리(Stromboli) 월페이퍼. 2 런던아트 유포리아(Euphoria) 월페이퍼로 연출한 모습. 3 미르니 세라크(Serax) 식기 이미지. 4 미르니 세라크 디자인 플라워도.



펜디의 이번 밀라노 2023 카사 컬렉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실비아 벤틀리니 펜디의 지휘 아래 선보이며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장인 정신과 관련된 공예(crafting), 포근한 분위기의 가족(family), 강렬하고 화려한 매력의 활력(vibrant)까지, 세 가지 핵심 콘셉트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은 컬렉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로 펜디의 유산과 탁월한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 토브코와 베이커에서 장점 부드럽고 세련된 그레이와 핑크로 이어지는 컬러감이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가족 제품 외에도 몇 가지 핵심 디자인 요소가 더욱 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메탈과 탁월한 품질의 우드를 사용해 좌석, 테이블 베이스, 침대를 하나의 튼튼한 형태로 구현한 구조적인 침실 가구를 들 수 있다. 2023 펜디 카사 컬렉션에 한층 풍성한 매력을 더하는 세 가지 의미 깊은 시팅 공간 솔루션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그중 대표적인 소파 피카시트(Peekasit)를 소개한다. 전 미르셀 밴더르스 스튜디오(Marcel Wanders Studi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가브리엘레 키아비(Gabriele Chiave)의 지휘하에 콘트롬벤토 스튜디오(Controvento Studio)에서 디자인하고 독일 칼레베르크 산한 이 소파는 동일한 이름의 유명 백색에 영감을 받았다. 따라서 부드럽고 유구적인 형태의 의 가족 삶에 패브릭 또는 부드러운 양모 카버를 위한 풍성한 패딩 쿠션을 담았다. 침실에는 두 가지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펜디 카사에서 새롭게 해석해 헤드보드에 2개의 작은 테이블 또는 베드 사이드 테이블을 위한 델라노(Delano) 침대와 가장자리에 부드러운 패브릭을 덧댄 베드 프레임, 헤드보드의 가죽 포인트가 돋보이는 또한 웅연의 토티(Toti)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펜디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쿠션과 FF 로고 디테일이 돋보이는 에스모어스(Mores) 리운지 체어, 브라운 컬러감과 스트리프 디테일이 매력적인 수모(Sumo) 커피 테이블까지, 펜디 카사만의 디테일과 매력이 돋보이는 컬렉션으로 가득하다. **에디터 송민지**

1 헤드보드에 2개의 작은 테이블 또는 베드 사이드 테이블을 위한 델라노(Delano) 침대. 2 네덜란드 디자이너 요스 판 플라아스베르크(Joost van Bleiswijk)가 스케치한 펜디 카사 칸도. 3 가족 위해 양모 카버를 덮어 독특한 매력을 더한 피카시트(Peekasit) 소파. 4 펜디 로고가 매력적인 쿠션 액세서리. 5 FF 디테일로 완성한 웅연의 브라운 컬러 리운지 체어. 6 브라운 컬러감과 스트리프 디테일이 돋보이는 커피 테이블. 7 패브릭 거품과 리운지 가죽 헤드보드 포인트가 돋보이는 또한 웅연의 토티(Toti) 침대.





DIOR

GEM DIOR COLLECTION  
Pink gold, white gold and diamonds.